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3, No. 129, pp.105-159
<https://doi.org/10.29212/mh.2023..129.105>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고구려 남부전선 내 '호로그루'의 위상과 의의*

신광철 | 국립김해박물관 학예연구사

- 목 차
1. 서론
 2. 호로그루 연구 略史
 3. 고구려 남부전선의 변천사와 '호로그루'
 4. 맺음말

초 록 임진강 유역은 남부전선의 최후방이자 고구려 멸망기까지 고구려의 內地로 남은 곳이다. 이에 남부전선 내 다른 지역과 차이가 크며, 오히려 서부전선과 유사한 양상이 확인된다. 이는 해당 지역에 대한 지방통치를 비롯해 인적·물적 자원 확보, 병력 운용과 영토 방어 등에 있어서 유리하게 작용하였기에 고구려는 임진강 유역을 안정적으로 점유하고자 노력하였다.

* 본고는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23년 군사사연구총서 용역사업-삼국시대 한강 유역의 관장체계와 전쟁'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임.

현재 임진강 유역에는 하천을 따라 20개소에 달하는 관방 유적이 분포하는데, 이를 통해 고구려와 신라 사이에 성곽과 보루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현대 국경과 유사한 ‘線’ 형태의 국경이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중 호로그루는 지안 국내성 및 평양 대성산성과 축조기법·구조 면에서 유사한 점이 많고, 기와가 가장 많이 출토된 곳으로서 이를 통해 군사·정치적으로 해당 지역의 重鎮으로 기능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 특히 지형상 渡河에 제한적인 임진강에 있어 하류 쪽으로부터 최초의 여울목이라고 할 수 있는 호로탄을 監制할 수 있기에 호로그루의 지정학적 위상은 임진강 유역에서 단연 독보적이라고 할 수 있다.

안정적으로 확보된 교통로를 통해 남하한 고구려군은 이내 한반도 중부 이남 각지에서 활발한 군사 작전을 벌이게 되었는데, 그 시발점이 바로 호로탄 일대를 감제하는 호로그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고구려 멸망기까지 호로그루의 위상은 단순히 임진강 유역의 성 1개소에 국한되었다기보다는 고구려 남쪽 국경의 關門, 고구려의 주요 교통로로서 고구려군의 威力이 강하게 작용하는 공간으로 인식되었을 것이다.

주제어 : 고구려, 남부전선, 임진강, 호로탄, 호로하, 호로그루

(원고투고일 : 2023. 10. 9, 심사수정일 : 2023. 11. 5, 게재확정일 : 2023. 11. 16.)

1. 서론

본 연구의 목적은 고구려 남부전선에 있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호로고루’의 위상과 의의를 재조명하는 데에 있다.

황해도 일대의 영역화를 마무리한 고구려는 한강을 넘어 남쪽으로 진출하면서 중요 거점을 먼저 점유한 뒤 각 거점을 연결하는 교통로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식을 취한다. 그 과정에서 백제의 성곽과 교통로, 기반 시설을 재활용하기도 했지만, 별도로 보루와 같은 소형의 관방 시설을 설치하거나 주민을 이주시켜 마을을 이루는 등 안정적인 통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주력한다. 이러한 점령지 통치 방식은 새로 확보한 영토 전역에서 똑같이 나타나지 않고, 지역에 따라 분포·집중도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임진강 유역에서는 이러한 고고학적 현상들이 고르게 확인되어 주목된다. 이는 남부전선이 확장되는 과정에서 임진강 유역의 영역화가 완료되어 그 일대가 고구려 멸망기까지 ‘자국 영토’로 확실하게 인식됐다는 뜻으로 이해해도 무방하다.¹⁾

임진강 유역은 남부전선의 최후방이자 고구려 멸망기까지 고구려의 內地로 남은 곳이다. 이에 남부전선 내 다른 지역과 차이가 크며, 오히려 서부전선과 유사한 양상이 확인된다. 이는 해당 지역에 대한 지방통치를 비롯해 인적·물적 자원 확보, 병력 운용과 영토 방어 등에 있어서 유리하게 작용하였기에 고구려는

1) 양주 분지와 한강 이북 사이의 경기 북부지역에서도 생활유적, 분묘유적, 관방유적 등이 골고루 확인되고 있지만, 임진강 유역보다 상대적으로 유적의 밀집도가 높지 않다. 추가 자료가 나오면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지만, 현 단계에서는 경기 북부지역에 대한 영역화를 증명해주는 것으로 이해해도 무방할 것이다.

임진강 유역을 안정적으로 점유하고자 노력하였다.

현재 임진강 유역에는 하천을 따라 20개소에 달하는 관방 유적이 분포하는데, 이를 통해 고구려와 신라 사이에 성곽과 보루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현대 국경과 유사한 ‘線’ 형태의 국경이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중 호로고루는 지안 국내성 및 평양 대성산성과 축조기법·구조 면에서 유사한 점이 많고, 기와가 가장 많이 출토된 곳으로서 이를 통해 군사·정치적으로 해당 지역의 重鎮으로 기능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 특히 지형상 渡河에 제한적인 임진강에 있어 하류 쪽으로부터 최초의 여울목이라고 할 수 있는 호로탄을 監制할 수 있기에 호로고루의 지정학적 위상은 임진강 유역에서 단연 독보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고에서는 호로고루의 위상과 의의를 재조명함으로써 임진강 유역의 관방 유적이 고구려 남부전선 내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2장에서는 호로고루에 대한 연구사를 간단하게 알아보고, 3장에서는 고구려 남부전선의 변천사 속에서 호로고루가 차지하는 위상과 의의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2. 호로고루 연구 略史

가. 현장조사 略史

임진강-한탄강 일대에서 가장 먼저 조사된 유적은 육계토성 내부의 주월리유적으로 1996년 한양대학교 박물관에서 조사한 제2호 주거지에서 고구려 토기가 수습되었다.²⁾ 이후 두 차례에

2) 漢陽大學校博物館/文化人類學科, 『坡州 舟月里 遺蹟: '96·'97 한양대학교 조사 지역』, 1999; 京畿道博物館·坡州市, 『坡州 六溪土城 試掘調查報告書』, 2006.

걸쳐 당포성이 조사되었으며³⁾, 1990년대에는 호로고루에 대한 지표조사가 이루어졌다.⁴⁾ 또한, 남한지역 내 고구려 유적에 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국립문화재연구소에 의해 실태 조사 및 정비 복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현황조사가 시행되었다.⁵⁾

2001~2016년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호로고루에 대한 발굴이 이루어졌다.⁶⁾ 2003~2017년 사이에는 은대리성이 세 차례 조사되었으며⁷⁾, 전곡리토성으로 알려졌던 유적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루어져 고구려의 흔적이 확인되었다.⁸⁾ 2010~2012년에는 무등리 2보루⁹⁾, 2017년에는 무등리 2보루 남쪽의 무등리 1보루에 대한 시·발굴이 이루어졌다.¹⁰⁾ 6차 조사까지 마무리된 파주 덕진산성은 2020년에 외성문지에 대한 조사가 진행된 상태이며¹¹⁾, 2022년

-
- 3)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연천 당포성 1차 발굴조사 보고서』, 2006; 경기도 박물관·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연천 당포성Ⅱ-시굴조사 보고서-』, 2008.
 - 4) 김성범, 「군사보호구역 내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京畿道 漣川郡篇-」, 『문화재』 25, 1992;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연천군, 『漣川 瓠蘆古壘(精密地畵調査報告書)』, 1999; 국립문화재연구소, 『군사보호구역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경기도편)』, 2000.
 - 5) 국립문화재연구소, 『남한의 고구려유적-현황조사 및 보존정비 기본계획(안)-』, 2006.
 - 6)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박물관·연천군, 『漣川 瓠蘆古壘Ⅰ(1次 發掘調査報告書)』, 2003; 『漣川 瓠蘆古壘Ⅱ(第2次 發掘調査報告書)』, 2007;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박물관·연천군 선사문화관리사업소, 『漣川 瓠蘆古壘Ⅳ(第3·4次 發掘調査報告書)』, 2014; 경기도 연천군·(재)한울문화재연구원, 『연천 호로고루 동벽 남측 치성』, 2018.
 - 7)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연천군, 『연천 은대리성 지표 및 시·발굴조사 보고서』, 2004; 중앙문화재연구원·연천군, 『연천 은대리성 성내부 발굴조사: 연천 은대리성』, 2018.
 - 8) 서울대학교박물관·연천군, 『경기도 전곡 선사박물관 건립부지 발굴조사 보고서』, 2007; 경기도·경기문화재단·한양대학교 문화재연구소, 『전곡선사박물관건립부지 내 문화재 발굴조사 보고서 연천 전곡리성: B·D·E지구』, 2010; 김명진·김은정·정봉구, 「전곡리 구석기 유적 절대연대측정의 현황 및 제언」, 『한국구석기학보』 44, 2021.
 - 9) 서울대학교박물관·연천군, 『연천 무등리 2보루』, 2015.
 - 10) 연천군·서울대학교박물관, 『연천 무등리 1보루 정밀 발굴조사 보고서』, 2019.
 - 11) 中部考古學研究所, 『坡州 德津山城-1·2次 學術發掘調査』, 2014; 坡州市·中部考古學研究所, 『坡州 德津山城Ⅱ: 1~5次 學術發掘調査 綜合 報告書』, 2018; 중부고고학연구소, 『파주 덕진산성(6차) 정비사업부지 내 유적 제3차 학술자문회의 자료집』, 2018.

에는 고성산보루가 고구려 관방유적이 확인되기도 하였다.¹²⁾

이상의 조사 성과를 기준으로 봤을 때 임진강 유역에서 중요하게 인식될만한 고구려 관방유적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는 확보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그중 호로그루에 대한 조사 성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호로그루에 대해 최초로 인식한 시점은 조선 후기이다. 효종 7년(1656)에 편찬된 『동국여지지』에 의하면 임진강은 ‘단수’ 또는 ‘단강’으로 불렸으며, 호로탄은 임진강의 유일한 ‘여울물[灘]’로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그 호로탄 가에 있는 호로그루에 대해 ‘두 보루[壘]가 강을 사이에 두고 마주 보고 있으며, 석벽으로 이루어져 견고하다. 전하는 말로는 삼국시대 때 군대가 주둔하던 곳이다.’라고 적고 있어 17세기 중반의 인식이 현재와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¹³⁾

한편, 효종 9년(1658) 6월, 허목은 한강 하류에서 배를 타고 임진강을 거슬러 올라가 3박 4일간 주위를 둘러보고 이를 기록으로 남겼는데, 이것이 허목의 시가와 산문을 엮어 1689년에 간행한 『기언별집』에 남아 있다. 여기에서는 임진강을 ‘청강’, ‘호로탄’ 앞을 흐르는 물길은 ‘호로하’, 그 상류는 ‘육계’ 등 지역에 따라 각각 다른 명칭으로 임진강을 부르고 있다. 또한, 육계 앞에 있는 ‘옛 보루[古壘]’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육계토성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상류의 옛 성이 강을 사이에 두고 마주한다는 표현이 나오는데¹⁴⁾ 이는 강을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

12) (재)수도문물연구원, 「연천 무등리(산8번지 일원) 고성산보루 내 유적 발굴조사 약식보고서」, 2022.

13) 『東國輿地志』 卷2, 京畿右道 長湍都護府, “湍水: 又名湍江 … 又過鳳凰巖, 至烏島城, 與漢水會, 西入于海. … 瓠蘆灘: 在府東三十里, 卽湍水灘. 新羅文武王時, 唐劉仁軌率兵, 絕瓠蘆河, 攻新羅七重城, 卽此灘. … 瓠蘆古壘: 在府東三十二里, 瓠蘆灘上. 其東卽積城縣界, 有二壘隔江相對, 因石壁爲固. 相傳三國時屯戍處.”

14) 『記言別集』 卷15, 記行 戊戌舟行記, “至臨津灘下, 爲清江遇, 順風舉帆, 自臨津

보는 호로그루와 육계토성을 지칭한 듯하다.

그와 달리 『기언』에도 호로하와 관련된 기록이 있는데 그 내용이 다소 다르다. 호로하에 있는 옛 보루 앞의 여울을 호로탄이라고 부르며, 남쪽으로 강을 건너면 옛 ‘칠중성 銅浦’가 나온다고 한다.¹⁵⁾ 앞서 허목의 기행문에 나온 내용과 비슷하면서도 중간에 ‘육계’ 및 육계로 유입되는 ‘사미천’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다. 『동국여지지』에 덕진산성의 廢城 여부가 기록된 것을 보면¹⁶⁾, 당시 임진강 유역에는 적지 않은 숫자의 古城이 있었으며, 그에 대한 史跡도 일부 전해졌을 가능성이 크다. 그중에서도 호로탄과 사미천 등의 지명이 등장하는 것을 보면, 호로그루와 육계토성에 대한 설명이 후대에까지 전해졌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한편, 『강한집』(1790)이나 『해동역사』(1823)에는 호로하(표하)와 칠중성만 언급되어 있지만¹⁷⁾, 1853~1856년에 발간된 『여도비지』에는 칠중성을 비롯해 아미성, 육계(토)성, 호로그루, 수철성이 모두 언급되고 있다.¹⁸⁾ 1861~1866년에 발간된 『대동지지』

上, 江岸始有石壁, 往往有深樹茂林. … 日晚舉帆, 上瓠蘆灘, 此瓠蘆河也. 其上六溪, 又有古壘. 前灘極險, 沙彌川入於此. 上流有古城, 隔江相對, 因石壁爲固. 江上父老相傳, 古萬戶壘云, 此未可知. 麗時數被兵於契丹, 此戰場也. 至今有古迹如此耶, 其上重城, 今積城縣. 亦曰此新羅, 句麗兩國之境云.”

15) 『記言』 卷27下, 山川(上), “瓠蘆河, 在下流鷗鷺巖下. 有古壘, 因江壁爲固. 其灘曰瓠蘆灘. 其南涉江, 古七重城銅浦, 在瓠蘆灘上.”

16) 『東國輿地志』 卷2, 京畿右道 長湍都護府, “德津山城: 在府西■里. 城跨斷山, 俯壓湍水. 石築, 周不知步數. 舊廢, 光海時, 府使李曙修築. 今復廢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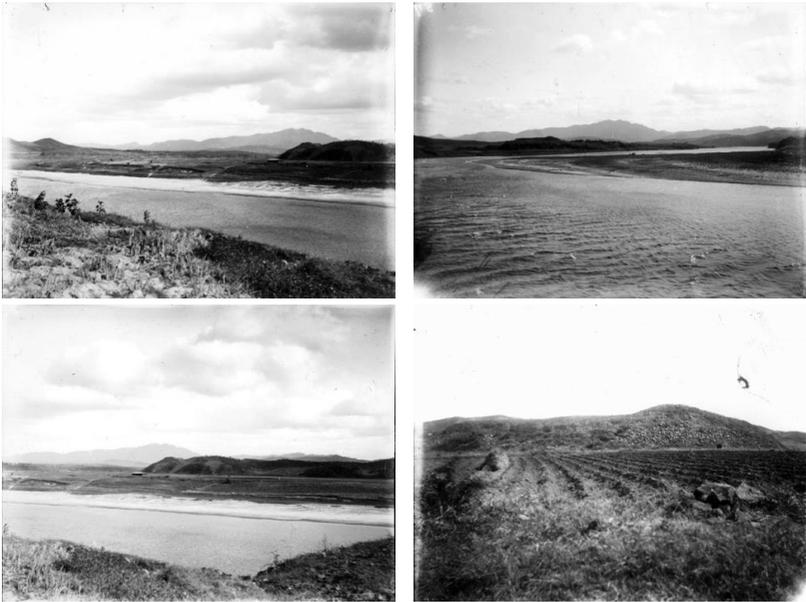
17) 『江漢集』 卷13, 神道碑 唐故奉常正卿平壤郡開國公食邑二千戶新羅國上將軍金公神道碑銘, “高句麗陰遣精兵伏瓠蘆河, 伺公渡岸.”

『海東繹史 續集』 卷14, 地理考14 新羅, “舊唐書列傳: 上元二年, 新羅文武王十五年, 劉仁軌率兵, 徑渡瓠蘆河. 破新羅北方大鎮, 七重城.”

18) 『輿圖備志』 卷4, 京畿道 積城縣, “古城: 治西二里, 卽七重城, 今呼重城縣. 治古在山城之南, 石築, 周二千二百五十六尺. 有一井, 深不可測. 峨眉城: 治東北十八里, 石築, 周一千九百三十七尺. 六溪城: 治西七里. 土築, 周七千六百九十二尺. 與長湍瓠蘆古壘相對. 水鐵城: 治東十里, 與楊州水鐵城相對.”

에도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¹⁹⁾ 전체적으로 비슷한 기록이 전하고 있다. 단, 『여도비지』와의 차이점을 꼽자면 칠중성을 ‘토탄성’²⁰⁾으로, 호로고루를 ‘호로탄고루’로 적은 점 등인데, 이는 고적과 관련된 전승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금씩 변형되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그림 1〉 호로고루 전경을 촬영한 유리건판 사진



* 출처 :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조선총독부박물관 유리건판
(<https://www.museum.go.kr/dryplate/main.do>) 검색

19) 『大東地志』卷3, 京畿道 積城, “古城: 南二里, 一云吐吞城, 今稱重城. 周二千二百五十六尺, 井一, 深不可測. 峨眉城: 東北十八里, 周一千九百三十七尺. 六溪城: 西七里, 周七千六百九十二尺, 與長湍瓢蘆灘古壘隔江相對. 水鐵城: 東二十里, 與楊州水鐵城相對.

20) 洪再善, 「積城 七重城 調査 略報」, 『佛教美術』7, 1983, 22쪽. 『동국여지승람』과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吐吞古城으로 적혀 있는데, 홍재선은 토탄이 말 그대로 ‘토하고 삼키다’, 즉, ‘뺏기고 빼앗는’ 삼국시대 이래 격전장으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보았다.

호로그루는 일제강점기에도 꾸준히 관심을 받아 1916년에 발간된 『대정오년도고적조사보고』에 상세한 조사 내용이 실리게 된다. 보고서에는 호로그루의 도면·사진과 함께 삼국시대 성곽으로서의 중요성이 서술되었는데²¹⁾, 이는 호로그루에 대한 최초의 학술조사보고인 셈이다(그림 1). 이후 1942년에 발간된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²²⁾와 1977년 발간된 『문화유적총람』²³⁾에서도 호로그루를 삼국시대 石城으로 인식하였으며, 1990년에 발간된 『한국의 성곽과 봉수』²⁴⁾에서는 호로그루의 또 다른 이칭으로 二殘眉城을 거론하기도 하였다. 이렇듯 호로그루에 대한 조사보고서가 꾸준히 발간되었지만, 조선시대 이래로 전해져 내려오는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더욱더 구체적인 현황이 밝혀지기 시작한 것은 1991년부터이다. 국립문화재연구소(현재 국립문화재연구원)에서 시행한 조사 결과, 백제가 판축 토성을 구축한 뒤 고구려가 석축을 쌓고, 신라가 마지막으로 성을 보강한 것으로 보았다.²⁵⁾ 이후 1993년에는 육군박물관에서 더욱더 정밀하게 조사를 진행하였다. 보고서에서는 고구려가 호로하를 건너는 백제 또는 신라를 방어하기 위하여 구축한 제일선의 진지로 해석하였다.

한편, 1991년 지표조사 때까지만 해도 성 내부가 양호한 상태였으나 1994년부터 성 내에 축사가 건설되는 등 빠르게 훼손이 진행되었다.²⁶⁾ 하지만 본격적으로 훼손되기 시작한 것은 1995년 이후부터이다. 토지 소유주가 성 내부에 버섯 농사를 짓기 시작

21) 今西龍, 「瓠盧古壘址」, 『大正五年度古蹟調査報告』, 朝鮮總督府, 1916, 163~166쪽.

22) 朝鮮總督府, 『朝鮮寶物古蹟調査資料(長湍郡)』, 1942, 58쪽.

23)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文化遺蹟總覽(上)』, 1977, 223쪽.

24) 한국보이스카우트연맹, 『韓國의 城郭과 烽燧(上)』, 1990, 270~273쪽.

25) 김성범, 앞의 논문, 1992, 234쪽.

26) 陸軍士官學校 陸軍博物館, 『京畿道 坡州郡 軍事遺蹟 地表調査 報告書』, 1994, 78~88쪽.

하면서 중장비로 성 내부를 약 1m 정도 삭토한 것이다. 성으로 진입하는 유일한 진입로인 동문지와 상당 부분의 유구가 이때 훼손된 것으로 보인다. 성벽 및 성 내부는 이미 훼손된 지점을 중심으로 층위 조사가 상세하게 이루어졌고, 층위상에서 확인된 유물을 분석한 결과 고구려가 초축한 이후 신라가 점유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²⁷⁾

2000년 11월부터 2001년 6월까지 1차 발굴이 이루어졌고, 성 내부가 사유지인 관계로 국유지에 해당하는 동벽에 대한 조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기저부와 중심부는 토성을 쌓듯이 판축을 하고 내·외벽을 석축으로 쌓은 후 보축성벽으로 마감한 고구려만의 독특한 축성기법을 확인하였다. 출토 수량만 놓고 본다면 지금까지 고구려 기와가 수습된 유적 중 최다이며, 통일신라시대와 고려시대, 조선시대, 한국전쟁 당시 유물까지 순차적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조사단은 고구려 멸망 이후 통일신라시대까지 호로고루가 중요하게 취급되었다가, 이후 고려시대에 다시 그 중요성이 부각된 것으로 해석하였다.²⁸⁾

2차 발굴은 사유지에 대한 매입이 완료된 이후 2005년 12월~2006년 9월에 걸쳐 시행하였다. 성 내부에 대한 잔존 유구를 확인하는 것을 목표로 발굴 전 GPR 탐사를 시행하였고, 그 결과 동고서저, 남고북저형의 현무암반 지형 위를 盛土하거나 고토양층을 굴착해 성 내부를 평탄화했음을 확인하였다. 흥련봉 2보루나 남성골산성에서 확인할 수 있는 목책열과 함께 지하식 벽체 건물지(집수시설), 추정 우물지, 지상 건물지와 와적층 등을 조사하였다. 와적층 사이에서 수습된 다량의 탄화 곡물을 통해 호로고루에 軍倉이 있었음을 추정하게 되었고, 각종 명문 토

27)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연천군, 앞의 보고서, 1999, 51~152쪽.

28)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연천군, 앞의 보고서, 2003, 313~320쪽.

기와 벼루, 저울추 등이 출토됨으로써 호로그루가 일대의 관방 시설을 관장하는 사령부이자 행정적인 기능도 겸했던 곳으로 조사단은 이해하였다.²⁹⁾

종합정비계획 수립 이후, 2009년 4~6월에 실시한 3차 발굴에서 지하식 벽체 건물지, 목책 유구, 와적층에 대한 추가 조사가 이루어졌고, 2011년 5월~2012년 3월까지 시행한 4차 발굴에서는 지하식 벽체 건물지에 대한 전면조사와 더불어 호로그루 정비계획에 따른 성 내부조사, 그리고 성 외부 정비보존대상 구역에 대한 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조사 결과, 호로그루 동벽은 토성을 석축으로 개축한 것이 아니라 토성과 석성의 축성기법을 결합한, 조사단이 ‘土芯石築工法’으로 명명한 고구려의 독특한 축성기법이 적용되었음이 밝혀졌다. 그 외 ‘相鼓’라는 명문이 새겨진 토제북편, 연화문와당과 치미편 등 다수의 유물이 출토되어 호로그루의 위상과 성격을 가늠할 수 있게 되었다. 더불어 집수 시설에서 수습된 탄화 곡물을 통해 호로그루에서 쌀과 조를 상대적으로 많이 소비하였고, 동물 유체 동정 결과 수습된 돼지의 유체가 사육종 돼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도 밝혀졌다.³⁰⁾

마지막으로 2016년 3월에는 1차 조사 시 기본적인 구조를 확인했던 동벽 남측 치성 구간에 대한 정비·복원에 앞서 발굴이 이루어졌다. 치성 북쪽 벽에 대한 해체 조사를 실시한 결과 후대 성벽과 치성의 선후 관계, 2차에 걸쳐 조성된 치성의 선후 관계 등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 외 입회 조사를 통해 고구려 보축성벽 안에서 고구려 성벽을 확인하였으며, 성벽 하단부 외면에서는 확돌 1기가 발견되었다.³¹⁾

29)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연천군, 앞의 보고서, 2007, 297~304쪽.

30)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박물관·연천군 선사문화관리사업소, 앞의 보고서, 2014, 425~485쪽.

31) 경기도 연천군·(재)한울문화재연구원, 앞의 보고서, 2018.

이처럼 호로그루는 총 다섯 차례의 발굴을 통해 임진강 복안에 위치한 고구려의 중요한 군사유적 중 하나라는 것이 밝혀졌다. 호로그루는 여러 차례의 지표조사를 통해 2000년 6월 12일 경기도 기념물 제174호로 지정된 바 있으며, 이후 1~2차 발굴 결과를 토대로 2006년 1월 5일 당포성, 은대리성과 함께 국가사적으로 지정되었다. 그에 따라 경기도는 도내에서 폭넓게 확인되는 고구려 관방유적에 대한 종합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³²⁾, 연천군에서는 3개 성을 대상으로 한 <연천 고구려3대성 종합정비 기본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였다.³³⁾

조사 완료 후 현재 호로그루는 주변 지역에 대한 정비를 끝내고, 지역 축제가 열리는 등 연천군의 새로운 문화 관광 랜드마크로 거듭나고 있다.³⁴⁾

나. 학술연구 略史

고구려 남부전선에서 확인되는 수십 개소의 유적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관방유적이다. 황해도 일원의 고구려성은 총 23개소인데 그중 대형 성곽(둘레 3km 이상)은 9개소이며, 나머지는 대부분 중대형 성곽이다.³⁵⁾ 또한, 양주 분지 일원부터 한강 유역 사이에는 60여 개소에 달하는 소형 관방유적(보

32) 경기도·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재연구원, 『경기도 고구려 유적 종합정비 기본계획』, 2008.

33) 명지대학교 한국건축문화연구소, 『연천고구려3대성 종합정비 기본계획』, 2008.

34) 2014년 1월부터 시작한 '장남면 통일바라기 축제'의 일환으로 호로그루 일대에 대단위 해바라기밭을 조성하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2021년 3월에는 장남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호로그루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자 삼족오 석상을 제작·설치하는가 하면 그해 9월에는 2002년 민화협이 추진했던 남북사회문화협력사업의 결과물인 광개토왕비 모형을 기증받아 호로그루 인근에 세웠다.

35) 신광철, 「황해도 일대의 고구려 관방체제와 남부전선의 변화」, 『先史와 古代』 35, 2011b.

루)이 축조된 것과 달리 임진강 유역에는 다양한 관방유적이 고르게 분포하고 있어 다른 지역과 차이가 있다.

특히, 호로그루, 당포성, 은대리성 3개소를 비롯한 여타 유적에서 확인된 고구려 토기는 아차산 보루군에서 수습된 6세기대 토기와 다른 5세기대 토기의 전형을 이루고 있다.³⁶⁾ 그 외 덕진산성을 비롯한 육계토성, 이잔미성, 칠중성, 성동리산성, 아미성 등에서도 고구려 관련 고고 자료가 확인되어 해당 유적이 고구려의 중요한 군사 거점이었음을 알려준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호로그루에 대한 지속적인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적지 않은 학술자료가 축적됨에 따라 그와 관련된 학술대회도 여러 차례 개최되었다. 2007년 서울경기고고학에서 개최한 <2006년도 서울·경기지역의 주요 발굴사례> 정기발표회, 2008년 광진구·한국고대학회에서 개최한 <2008 고구려 역사문화 계승을 위한 학술대회>을 비롯해 2017년 한국성곽학회에서 개최한 <고대성곽(古代城郭)의 수축(修築)과 개축(改築)>, 2018년 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재연구원과 중부고고학회가 개최한 <임진강 유역, 분단과 평화의 고고학>, 2021년 연천군에서 주최한 <연천군 고구려역사문화권 활성화 방안 학술세미나> 등 최근까지도 호로그루를 위시한 임진강 유역의 고구려 관방유적에 대한 학술 연구는 계속되고 있다.

더불어 경기도박물관은 2005년 특별전 <우리 곁의 고구려>를 개최해 경기도에서 출토된 각종 고구려 관련 흔적들을 소개하였으며, 부산 복천박물관은 서울대학교박물관과 공동으로 2012년 <고구려, 한반도를 품다>라는 특별전을 개최해 호로그루에서 출토된 각종 고고 자료를 소개하기도 하였다. 호로그루 이외에도 무등리보루군, 덕진산성 등에서 괄목할만한 조사 성과가 나오고

36) 양시은, 「남한에서 확인되는 고구려의 시·공간적 정체성」, 『고고학』 10-2, 2011.

있고, 그에 따라 덕진산성은 2017년 1월 19일 국가사적으로 지정되었으며, 무등리보루군 또한 국가사적으로 지정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하고 있으므로 향후 이와 관련한 학술 활동 및 전시 개최 등의 후속 작업도 이루어질 것이다.

남한 각지의 고구려 관방유적이 조사·연구됨에 따라 임진강 유역의 고구려 관방유적 또한 ‘고구려 관방체계’라는 포괄적인 주제에 포함되어 다루어지기 시작했다. 최종택³⁷⁾, 심광주³⁸⁾, 서영일³⁹⁾, 백종오⁴⁰⁾, 양시은⁴¹⁾, 신광철⁴²⁾ 등 다수의 연구자가 관련 논고를 발표하였고, 임진강 유역부터 양주 분지 일원, 한강 유역까지 고구려의 남진 과정을 복원할 수 있는 각종 고고 자료를 포괄적으로 다루었다. 이를 통해 주요 성곽의 축조 시기와 구조, 축조집단과 점유집단에 대한 이해, 관방체계와 그에 따른 영역 변천 과정 등에 대해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다 보니 호로고루 개별 유적에 관한 연구보다는 임진강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거시적인 시각에서의 연구가 주를 이루게 되었다. 이후 호로고루에 대한 세부적인 주제도 다루어지기 시작했는데, 이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고구려 관방체계라는 거시적인 범위 안에서 임진강 유역의 관방유적을 살펴본 연구가 다수 있다.

이준선⁴³⁾은 적성지역의 지리학적 특징을 살펴본 뒤 고구려 관방 유적의 분포 범위와 연결해 폭넓게 이해한 바 있다. 권순진⁴⁴⁾은

37) 崔種澤, 「京畿北部地域의 高句麗 關防體系」, 『高句麗研究』 8, 1999.

38) 沈光注, 「남한지역의 고구려 유적」, 『高句麗研究』 12, 2001.

39) 徐榮一, 「京畿北部地域 高句麗 堡壘 考察」, 『文化史學』 17, 2002.

40) 白種伍, 「南韓地域 高句麗 關防體系-臨津江流域을 중심으로-」, 『先史와 古代』 26, 2007.

41) 梁時恩, 「남한 내 고구려 성곽의 구조와 성격」, 『高句麗渤海研究』 36, 2010.

42) 신광철, 「고구려 남부전선의 지휘관과 군사편제」, 『韓國上古史學報』 74, 2011a.

43) 이준선, 「적성지역의 전략적 가치와 그 배경」, 『문화역사지리』 16-3, 2004.

44) 권순진, 「임진강유역 고구려城의 性格 再考-호로고루·당포성·은대리성을 중심

임진강 유역의 고구려 3대 성(호로그루, 당포성, 은대리성)에 대한 성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였는데, 시기별로 해당 성곽들의 성격과 운용 범위에 변화가 있었음을 지적하였다. 서영일⁴⁵⁾은 임진강 유역에 구축된 관방체계를 한강하구를 장악하기 위한 포석으로 이해하고, 임진강 일대가 당시 고구려의 핵심적인 방어선이었다고 보았다. 가장 최근에는 백종오⁴⁶⁾에 의해 남한지역 전체의 관방체계 속에서 임진강·한탄강 일대의 관방유적과 교통로의 상관성을 다루는 논고가 발표되기도 하였다.

그 외 호로그루에서 출토된 동물 뼈에 관한 연구도 눈에 띈다. 백종오⁴⁷⁾는 호로그루에서 출토된 동물 뼈와 연화문 수막새의 출토 상황을 근거로 군사시설을 제의유적이라는 측면에서 새롭게 바라보았다. 이준정⁴⁸⁾은 호로그루에서 출토된 돼지 뼈를 분석하여 이를 야생종이 아닌 사육 종으로 분류하였다. 騎乘이나 畜力 도입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에서 사육종 돼지 자료가 호로그루에서 다수 확인된다는 점은 앞서 제의의 측면을 강조한 백종오의 연구와 연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더불어 호로그루 및 성내 출토품을 고고학적으로 접근해서 살펴본 미시적인 연구가 눈에 띈다.

이형호⁴⁹⁾는 호로그루 내에서 층서적으로 선후 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유구를 선별한 뒤 해당 유구에서 수습된 토

으로-, 『軍史』 83, 2012.

45) 서영일, 「삼국시대 임진강 유역 관방체계와 덕진산성」, 『百濟文化』 56, 2017, 207~208쪽.

46) 백종오, 「臨津江·漢灘江流域 古代 關防體系와 河川路」, 『지방사와 지방문화』 25-2, 2022.

47) 백종오, 「남한 내 고구려 유적 유물의 새로운 이해-최근 발굴 유적을 중심으로-」, 『先史와 古代』 28, 2008.

48) 李俊貞, 「飼育種 돼지의 韓半島 出現 時點 및 그 社會經濟的·象徵的 意味」, 『韓國考古學報』 79, 2011, 160~162쪽.

49) 이형호, 「南韓地域 出土 高句麗土器 研究」, 高麗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2014.

기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호로그루에서 출토된 토기를 총 3기로 분류하였고, 이를 통해 고구려의 남진이 4세기 후엽, 475년, 529년, 568년 등 4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고 보았다. 심광주⁵⁰⁾는 호로그루 발굴에 참여하면서 일찍부터 호로그루의 축조기법에 대해 다수의 논고를 발표하였다. 고구려의 독특한 축조기법을 ‘토심석축공법’이라고 명명한 그는 공법의 장점으로 축성 용이성과 방어력을 동시에 확보 가능하다는 점을 꼽았다.⁵¹⁾ 고광의⁵²⁾는 남한 각지에서 출토된 고구려 토기에 새겨진 명문을 분석한 결과, 호로그루에서 출토된 ‘상고’라는 명문은 필법의 완성으로 일컬어지는 永字八法을 거의 완벽하게 구사할 정도로 최상급 서사 능력을 갖춘 사람의 솜씨라고 보았다. 그리고 이처럼 문자를 인식하고 사용할 수 있는 병사의 존재를 통해 호로그루가 다른 주둔지보다 위계가 높은 사령부의 지위를 갖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한편, 호로그루가 고구려에게 중요했던 곳이었던 만큼 그곳을 차지한 신라에게도 남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졌음을 지적한 연구도 있다. 윤성호⁵³⁾는 무등리 2보루·호로그루에서 고구려의 상징과도 같은 적갈색 기와 건물이 붕괴한 것은 곧 임진강을 사이에 둔 신라와 고구려의 대치가 종식되는 것을 대변해 준다고 보

50) 심광주, 「임진강 유역 고구려 성곽의 발굴조사 성과와 축성법」, 『高句麗渤海研究』 62, 2018.

51) 안성현·박동선, 「아차산 일대 고구려 보루의 구조에 대한 재검토」, 『한국고대사탐구』 32, 2019, 480~481쪽. 최근 고구려 관방유적의 토축부와 석축부가 동시에 축조된 것이 아니라 선후 관계에 있다고 본 연구가 나왔다. 논자는 토성의 외곽을 제거한 뒤 석벽을 덧댄 다수의 사례를 토대로 고구려 성곽 역시 동일한 축조기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52) 고광의, 「남한 출토 고구려 토기 명문 연구」, 『목간과 문자』 27, 2021, 227~228쪽.

53) 윤성호, 「신라의 임진강 유역 진출과 대고구려 경계의 형성」, 『한국고대사탐구』 41, 2022, 71~72쪽.

았다. 실제 호로그루를 확보한 신라는 이를 수·개축하여 對唐 전쟁의 최전선으로 활용한 만큼 호로그루는 고구려뿐만 아니라 신라에도 중요한 역사적 의미가 있는 곳이었다.

이상의 연구 약사를 검토했을 때, 넓게 보면 고구려의 남부전선, 좁게 보면 임진강 유역 및 파주·적성 일대의 관방체계를 논할 때 호로그루는 빠짐없이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임진강 하류 쪽에서부터 가장 먼저 등장하는 여울(호로탄)을 강제했던 곳, 연화문 수막새를 비롯한 다수의 기와·치미가 출토되어 다른 관방시설에 비해 그 위상이 높았던 곳, 유적 내에서 출토된 동물 뼈를 매개로 성 내에서 제의행위가 이루어졌던 곳, 수준 높은 문자 활동을 영위했던 주둔군의 존재와 軍倉으로서의 중요성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호로그루의 위상과 의의를 살펴볼 수 있었다.

3. 고구려 남부전선의 변천사와 ‘호로그루’

가. 고구려 남부전선의 변천사

서북한 지역과 황해도 일대를 확보한 고구려는 4세기 초반 이후에는 임진강과 예성강 일대에서 백제와 접경하게 되고⁵⁴⁾, 초반에는 백제가 우세하여 양국의 국경은 황해남도까지 이동하였다. 하지만, 4세기 말 광개토왕이 거둔 군사적 성과로 인해 전황은 급격하게 고구려 쪽으로 기울었으며, 이와 동시에 고구려

54) 책계왕 원년(286), 고구려와 백제의 대립 기사를 보면 3세기 후반까지는 양국 사이에 ‘대방’이라는 완충지대가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비록 314년까지 대방군이 존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제가 고구려의 침략을 대비해 아차성과 사성을 수리했다는 기록을 보면, 당시 고구려에게 있어 완충지대를 극복하고 한강 유역에서 군사 작전을 벌이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남쪽 변경을 중심으로 고구려 남부전선이 성립하기 시작했다.

백제는 잃어버린 영토를 수복하기 위해 수곡성(394)과 패수(395)에서 고구려군과 전투를 벌이지만 모두 패하고, 오히려 고구려의 대대적인 공격을 받아 58개 성과 700여 개 촌락을 빼앗긴다. 이로써 고구려는 4세기 후반~5세기 초반 경기 북부 일원과 한강 유역을 자국의 영향권으로 흡수하는 데 성공한다.

전선의 변화상은 일반적으로 ‘형성→확장→고착·안정→소멸’의 네 단계로 분류할 수 있다. 고구려의 남진 시점과 경로, 점령 및 통치 방식 등에 차이가 있었기에 남부전선은 지역마다 상황이 달랐으며, 이를 서울·경기 지역과 중원 지역, 강원도·경상도 일원으로 나누어 볼 필요가 있다.

남부전선 ‘형성기’에 고구려는 남평양을 건설함과 동시에 주변으로 조밀한 관방체계를 구축하고, 한반도 중부지역을 주변부로 흡수하였다. 더불어 강원도 일대로 진출한 고구려는 그 지역을 빠르게 장악하여 南進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과 교통로 등을 확보하였다.

남부전선 ‘확장기’에는 임진강 유역의 관방체계가 조밀하게 구축되고, 경자년(400년)의 군사 작전을 통해 경상남도 깊숙이 진출한다. 내물마립간의 죽음, 실성의 귀환과 즉위 등 402년 신라에서 긴박하게 벌어진 정치적 상황에 고구려가 개입하면서 실성마립간은 즉위 내내 고구려에 의존적일 수밖에 없었다. 뒤이은 눌지마립간마저 고구려의 군사력에 의지해 즉위(417)하게 되면서 고구려는 신라에 더욱더 강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⁵⁵⁾

55) 마립간기 신라·고구려 관계에 대해 다음 논고들을 참고하기 바란다(신형식, 「중원 고구려비의 성격」, 『한국고대사의 신연구』, 일조각, 1984, 405쪽; 鄭雲龍, 「5~6世紀 新羅·高句麗 關係의 推移-遺蹟·遺物의 解釋과 關聯하여-」, 『新羅文化祭學術發表會論文集』 15, 1994; 장창은, 「신라 訥祗王代 고구려세력의 추출과 그 배경」, 『한국고대사연구』 33, 2004, 주보돈, 「5~6세기 중엽 高句麗와 新羅의 관계-신라의 漢江流域 진출과 관련하여-」, 『북방사논총』 11, 2006; 조한정, 「박제상과

남부전선 ‘고착·안정기’가 되면 확장일로에 있던 고구려 남부전선 전면에 걸쳐 고착화가 진행되면서 일부는 영역화가 진행되고, 일부는 백제·신라와의 경합 속에서 전선이 進退를 거듭한다. 한편, 임진강 유역에 대한 영역화가 공고해지며, 고구려의 내지로서 자리매김한다.

마지막으로 남부전선 ‘소멸기’는 6세기 전반 영동 지역의 영역화를 완료하고 중원 지역까지 진출한 신라⁵⁶⁾에 의해 고구려의 영토가 점차 북쪽으로 밀려나는 시기이다. 한반도 중부지역의 상당 부분이 신라의 영역으로 넘어가고, 590년대에 온달이 아단성을 공격하는 등 고구려도 재차 공세를 강화하지만, 이후 양국의 경계는 임진강 유역으로 정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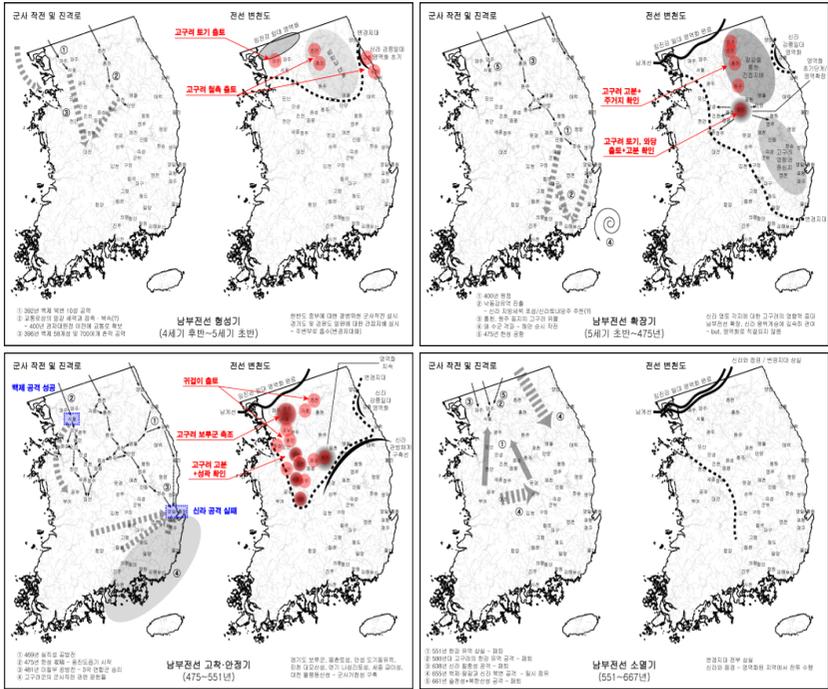
고구려는 6세기 후반부터 점차 축소된 전선을 확장해 외곽에 변경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이미 영역화된 점령지에 구축된 신라의 방어체계를 깨뜨리기는 어려웠다. 특히, 7세기에 접어들면서 남부전선은 이전과 같은 형태로 유지되기 어려워졌고, 중원을 통일한 隋·唐과 장기간 大戰을 치르는 바람에 지속해서 국력이 減退한 것도 주요 변수로 작용하였다. 훗날 요동 및 평양·황해도 일대가 직접적인 전쟁의 피해를 보면서 황폐해졌고, 이는 심대한 국력 상실로 이어져 다시는 국가를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그림 2).⁵⁷⁾

5세기 초 신라 정치, 『東아시아古代學』 25, 2011, 50~51쪽.

56) 강종훈, 「상고기 신라의 영역 확장과정과 지방통치방식」, 『역사와 현실』 31, 1999; 徐榮一, 「신라의 국가형성과 발전단계에 따른 방어체계 연구」, 『新羅文化』 34, 2009, 15쪽.

57) 신광철, 앞의 논문, 2022b, 535~545쪽.

〈그림 2〉 남부전선 변천 과정 모식도



* 출처 : 신광철, 「관방체계를 통해 본 고구려의 국가전략 연구」, 高麗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2022b, 353/390/483/536쪽

이상 남부전선의 변천사 속에서 지역별 상황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이를 보면 임진강 유역은 남부전선 형성기부터 소멸기까지 계속 고구려의 영역으로 남아 있었고, 수백 년에 걸쳐 고구려가 확보했던 만큼 그와 관련한 다양한 고고 자료가 확인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⁵⁸⁾

58) 이정빈, 「임진강·한탄강 유역의 고구려 지명과 그 의미-경기도 연천 지역을 중심으로-」, 『사학연구』 134, 2019. 고고 자료뿐만 아니라 임진강·한탄강 유역에서 광범위하게 확인되는 고구려 지명 역시 고구려가 해당 지역을 장기간 점유했음을 알려주는 또 다른 증거라고 할 수 있다.

〈표 1〉 각 시기·지역별 고구려 관련 고고 자료 일람

시기	서울·경기 지역	중원 지역	강원도 및 경상도 일원
형성기 (4세기 후반 ~5세기 초반)	임진강 유역 - 토기	.	춘천·홍천 일대 - 철축
	주거지(생활)		주거지(생활)
확장기 (5세기 초반 ~475년)	임진강 유역 - 토기	충주 일대 - 토기 및 와당	홍천·원주 일대 - 토기
	관방(성곽), 고분(분묘)	주거지(생활)	수혈유구·주거지(생활)
고착·안정기 (475~551년)	임진강 유역 경기 북부 한강 유역 경기 남부 - 토기 및 철기	충청남도 일대 충주 일대 - 토기 및 귀걸이	춘천 일대 - 귀걸이
	관방(재사용 및 신축) 고분(분묘), 주거지(생활)	관방(재사용 및 신축)	고분(분묘)
소멸기 (551~667년)	임진강 유역	.	.

나. 임진강 유역 교통로의 성격

문헌에 기록된 고구려 성곽은 그리 많지 않다. 특히 고구려 남부전선에 소재한 성곽은 대부분 백제로부터 攻取한 것이며, 고구려가 새롭게 쌓은 관방시설에 대한 기록은 소략하다.

실제 3세기 말까지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에 기록된 고구려 성곽은 태조대왕이 쌓았다고 하는 요서 10성을 포함한다고 해도 채 20개소가 되지 않는다. 하물며 4세기 이후 남부전선 확장과정에서 보이는 고구려의 성으로는 평양성 및 평양 동황성을 제외했을 때 390년 백제가 攻破했다고 기록된 '도압(곤)성', 광개토왕 3년(394)에 나라 남쪽에 쌓은 7개의 성, 이후 나라

동쪽에 쌓은 6개의 성(409), 550년 백제가 빼앗은 ‘도살성’ 정도이다. 이중 현재 고고 자료와 합치되는 성곽의 존재를 찾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며, <광개토왕릉비>에 적힌 공적에서 알 수 있듯이 고구려가 직접 쌓은 성곽보다 백제로부터 공취한 후 재사용한 성곽이 더 많았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도 임진강 유역부터 그 이남에서 확인되는 고구려의 성곽을 보면 백제와는 다른 배경과 목적을 염두에 둔 축성의 결과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호로그루와 같이 중요한 도강 지점 주변에 축조된 성곽은 철저하게 축성 주체의 전략·전술적 시각이 반영된 관방시설이다. 이는 동일한 지형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형을 활용하는 주체에 따라 해당 지형이 갖는 의미가 달라진다는 의미이며, 고구려가 임진강 유역에 진출하기 이전 그 지역을 배경으로 활동했던 선주민들과 고구려의 인식에 분명히 차이가 있었음을 알려준다.

『대동여지도』와 『대동지지』, 『적성현읍지』 등의 문헌을 보면 임진강 유역 중에서도 특히 ‘파주시 적성면’ 일대에 옛 성의 밀집도가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다. 적성은 임진강 일대에서 가장 큰 규모의 가여울(개여울)을 비롯해 호로탄, 학여울 등이 자리한 곳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적의 도강을 막고, 수운을 통제하기 위한 관방시설이 주변에 집중될 수밖에 없었다. 호로그루와 이잔미성, 육계토성, 칠중성, 두루봉보루와 아미성 등 적성 일대를 방어하던 관방시설이 확인되며, 이외에도 현재 확인되지 않는 관방시설이 고문헌에는 추가로 명시되어 있다.⁵⁹⁾

59) 이준선, 앞의 논문, 2004.

〈표 2〉 한반도 중부지역 내 고구려 유적 범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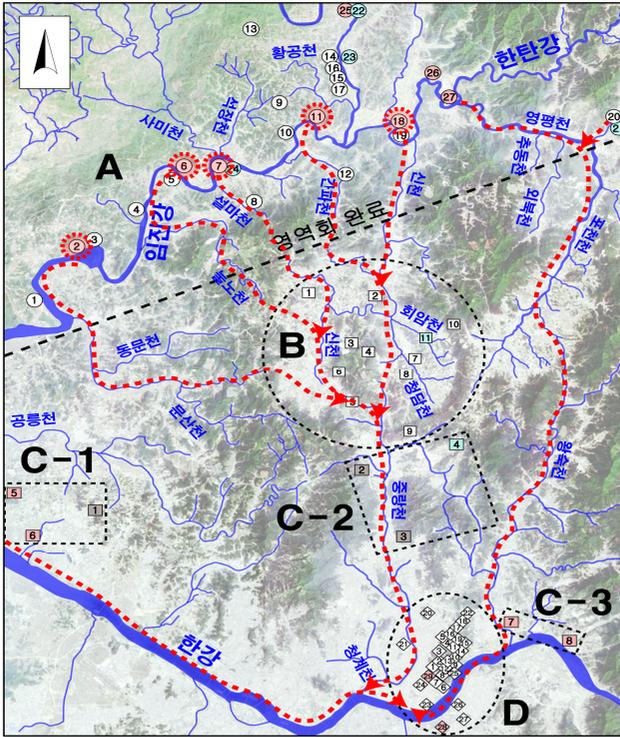
지역 구분	유적명				
임진강 유역 (A권역)	① 조랑진보루	② 덕진산성	③ 동파리보루	④ 두루봉보루	⑤ 이진미성
	⑥ 호로고루	⑦ 옥계토성	⑧ 칠중성	⑨ 광동리보루	⑩ 아미리보루
	⑪ 당포성	⑫ 아미성	⑬ 강서리보루	⑭ 고성산보루	⑮ 무등리 1보루
	⑯ 무등리 2보루	⑰ 우정리보루	⑱ 은대리성	⑲ 전곡리 목책	⑳ 성동리산성
	● 성동리 마을유적	● 강내리유적	● 삼거리 유물산포지 ²	● 주월리유적	● 강내리 고분군
	● 통현리 고분	● 신당리 고분군			
양주분지 일원 (B권역)	㉑ 태봉산보루	㉒ 소래산보루	㉓ 도락산 2보루	㉔ 도락산 3보루	㉕ 불곡산 4보루
	㉖ 불곡산 9보루	㉗ 독버위보루	㉘ 고장산 2보루	㉙ 천보산 2보루	㉚ 천보산 5보루
	㉛ 옥정동유적				
양주분지 한강유역 (C-1~3권역)	■ 고봉산성	■ 사패산 1보루	■ 수락산 1보루	■ 민락동유적	■ 동패동유적
	■ 도내동유적	■ 지금동 II 유적	■ 덕소리유적		
한강유역 (D권역)	◇ 용마산 1보루	◇ 용마산 2보루	◇ 용마산 3보루	◇ 용마산 4보루	◇ 용마산 5보루
	◇ 흥련봉 1보루	◇ 흥련봉 2보루	◇ 아차산 1보루	◇ 아차산 2보루	◇ 아차산 3보루
	◇ 아차산 4보루	◇ 아차산 5보루	◇ 아차산 6보루	◇ 아차산 관방유적	◇ 시루봉보루
	◇ 망우산 1보루	◇ 망우산 2보루	◇ 망우산 3보루	◇ 아차산 장성 ⁶⁰⁾	◇ 봉화산보루
	◇ 배봉산보루	◇ 교문동 관방유적	◇ 구의동 보루	◇ 백련봉보루	◇ 아차산성 ⁶¹⁾
	◇ 풍납토성	◇ 몽촌토성	◇ 기락동 고분군	◇ 중곡동 고분군 ⁶²⁾	

* 출처 : 신광철, 앞의 논문, 2022b, 405쪽, 표 20 수정 후 게재

※ 굵은 글씨는 현장조사가 진행된 유적(지표조사 제외)

- 60) 신광철, 앞의 논문, 2022b, 465~469쪽. 아차산장성은 기존에 조선시대 목장성으로 비정되어 왔다. 하지만, 구간마다 축조기법이 다른 점, 토루의 규모가 단순한 목장성으로 보기 힘든 점, 일제강점기 조사 결과 등을 고려했을 때 고구려 남평양과 관련된 유구 흔적일 가능성이 있다.
- 61) 아차산성 남벽 및 배수구 내부시설의 중층에서 연화문 수막새 네 점이 출토되었다. 그중 완형으로 출토된 한 점은 인근의 흥련봉 1보루에서 출토된 것과 동일하며, 나머지 세 점은 호로고루 출토품과 동일하다. 아차산성 내에서 백제의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고구려 수막새를 통해 흥련봉 1보루가 존속되던 시점에 이 지역에도 일단의 고구려군이 주둔했을 가능성이 크다.
- 62) 신광철, 앞의 논문, 2022b, 470~471쪽. 중곡동 고분군은 기존에 조사된 감총과 을총이 6세기 후반대 신라 황혈식 석실묘로 밝혀졌기에 신라 고분군으로 알려져 왔다. 하지만 경기 지역 신라 고분군은 모두 산지에 조성하며, 평지에 자리한 곳은 중곡동 고분분과 석촌동 고분군이 유일하다. 특히, 하천 주변의 평지에 대단위 고분군을 조성하는 것은 고구려에서 비롯되는데, 능동 출토 금귀걸이를 토대로 봤을 때 중곡동 고분군이 남평양과 관련된 고구려 고분군일 가능성이 있다.

〈그림 3〉 한반도 중부지역의 고구려 유적 분포도



* 출처 : 신광철, 앞의 논문, 2022b, 404쪽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임진강 유역 내 다수의 관방유적에서 기와가 확인됐다는 사실이다(그림 3, 표 2). 총 10개소의 관방유적(덕진산성, 두루봉보루, 이잔미성, 호로고루, 육계토성, 칠중성, 당포성, 아미성, 무등리1보루, 성동리산성)에서 기와가 수습되었는데⁶³⁾, 이는 남평양의 후보지인 한강 유역보다도 많은 숫자다.

63) 안성현·최광훈, 「연천 대전리산성의 성격 연구」, 『文物研究』 34, 2018. 대전리산성 주변에서 고구려·신라 기와편이 채집되어 기존에는 고구려 관방유적으로 분류하였으나 최근 조사 결과, 6세기 중후반 경 신라 초축의 흔적들이 확인되었기에 본고에서는 일단 제외하였다. 대전리산성까지 포함하면 임진강 유역의 고구려 관방유적 21개소 중 11개소에서 기와가 확인된 셈이다.

『구당서』에 의하면 고구려에서는 오직 佛寺와 神廟, 王宮과 官府에만 기와를 사용했다고 한다.⁶⁴⁾ 이외에도 기와를 사용했을 가능성은 충분한데⁶⁵⁾ 이와 연계하여 최전방의 소형 군사시설인 보루에서 기와가 다수 확인된다는 사실은 분명 흥미롭다.

특히 고구려의 연화문 수막새는 임진강 유역의 호로고루(1점), 한강 유역의 아차산성(4점)과 홍련봉 1보루(7점)에서만 출토되었고, 관방유적에서 확인된 와당 및 기와는 해당 유적을 단순한 군사시설로만 보는 시각에 재고를 요한다.⁶⁶⁾ 즉, 행정 치소뿐만 아니라 정치·군사적인 기능도 같이 고려하는 시각인데 인근의 생활·생산유적과 함께 살펴봐야 하는 무등리 2보루와 성동리산성, 육계토성을 제외한 순수 군사 거점으로 볼만한 유적에서도 기와가 출토되고 있다. 이를 두고 백종오⁶⁷⁾는 와당과 기와가 출토된 유적 내 해당 건물의 위계가 다른 곳보다 높았으며, 이곳에서 국내성에서 열리는 국중대회와 유사한 제의행위가 이루어졌다고 해석하였다.⁶⁸⁾

임진강 유역에서 수막새와 기와가 모두 출토된 유적은 호로고루 한 곳뿐이다. 그렇다면 임진강 유역에서 호로고루가 중요하게 취급받게 된 계기나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 호로고루가 갖는 지형적 특징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64) 『舊唐書』卷199上, 列傳149上 高句麗, “唯佛寺·神廟註及王宮·官府乃用瓦.”

단, 『구당서』 이전의 중국 사서 어디에도 기와의 用處에 대한 별도 기록이 없는 것을 보면, 시기에 따라 기와의 용처에 대한 법제화 유무가 달랐을 가능성이 있다. 즉, 호로고루 및 고구려 보루에서 출토된 기와를 반드시 위 기사와 연결해 이해할 필요는 없지만, 가능성은 열어두고자 한다.

65) 미천왕이 도피 생활을 했을 때 수실촌 사람 음모의 집에 살면서, 밤마다 연못의 개구리가 울면 기와나 돌을 던져 조용히 시켰다는 일화를 떠올릴 필요가 있다. 일반 서민도 기와를 사용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관청이나 종교 시설 이외에도 기와가 사용되었다고 이해해도 무방할 것이다.

66) 최종택, 『아차산 보루와 고구려 남진경영』, 서경출판사, 2013, 238~239쪽.

67) 백종오, 앞의 논문, 2008.

68) 백종오, 『高句麗 瓦當의 毀棄와 그 象徵的 意味』, 『한국고대사연구』 66, 2012.

기본적으로 한반도 북부에서 중부 이남으로 내려올 때 사용하는 교통로를 꼽는다면 황해도 재령-해주를 기점으로 개성을 지나 파주-고양을 따라 서울 중심부까지 오는 재령로(A), 서흥과 평산-금천 등 자비령을 따라 이동해 적성을 통해 동두천과 양주-의정부로 내려오는 자비령로(B)⁶⁹⁾, 연산-수안-신계 등 방원령을 따라 내려오다가 철원-연천 등지를 통해 양주로 내려오는 방원령로(C), 마지막으로 해주에서 서해 연안을 따라 한강으로 들어와 서울 중심부까지 들어오는 뱃길(D) 등을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그림 4).⁷⁰⁾

이중 재령로(A)는 임진강 하류를 관통하는 길로서 남북을 잇는 최단 거리 교통로라는 이점이 있다. 하지만 임진강은 상류와 하류의 강폭 차이가 심하여 상류는 200~500m에 불과하지만, 하류는 강폭이 2.8km에 이를 정도로 넓은 곳도 있다. 유속은 3~4m로 빠른 편이지만 수직 단애가 없는 지점은 유속이 1~2m로 느리며, 수심도 1m 내외로 얕다.⁷¹⁾ 그런 이유로 삼국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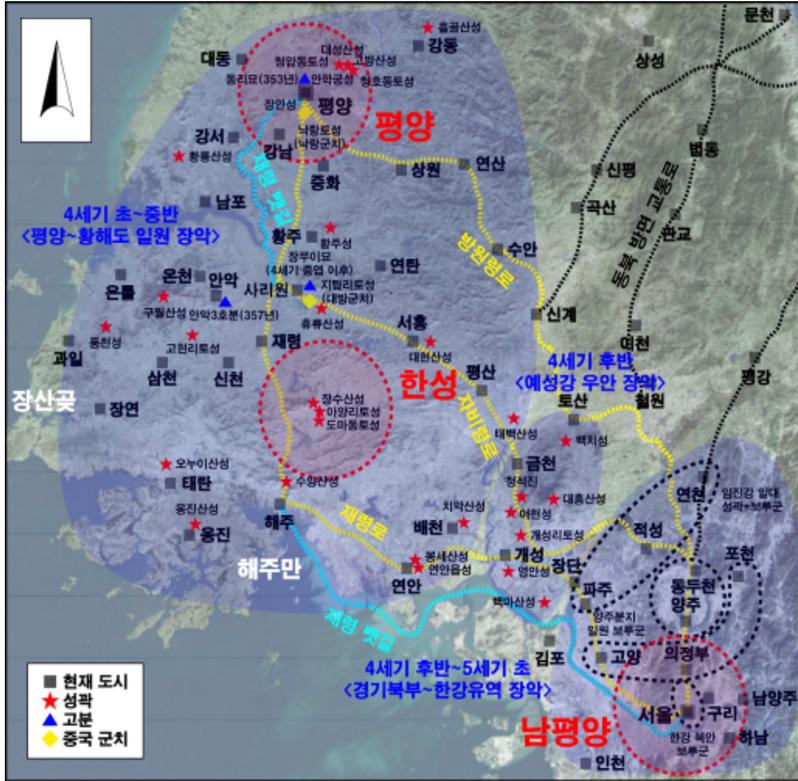
69) 정조 5년(1781) 12월 9일, 경기관찰사 이형규의 상소를 보면 '고랑포 일대'가 서북의 大路가 통과하는 교통·군사상 요지이면서 동시에 사잇길 두 가닥이 지나가는 곳임을 알 수 있다. 하나는 江邊압록강 일대에서부터 陽德평남·孟山(평남)을 넘어서 谷山(황북)·遂安(황북)을 지나 高浪浦에 닿는 길로 총 4백여 리, 다른 하나는 六鎭두만강 하류 남안에서부터 곧바로 三防(함남)·楸柯嶺(함남 안변~강원도 평강군)으로 달려 平康(강원도)·伊川(강원도) 사이로 나와서 고랑포에 도달하는 길로 총 3백여 리의 교통로에 해당한다. 모두 압록강과 두만강에서 한반도 중부로 향하는 교통로인데, 이 또한 장단 지역을 통과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림 4>에 표시된 동북방면 교통로를 참고하면 좋을 것이다.

70) 서영일, 「고구려의 백제 공격로 고찰」, 『史學志』 38, 2006, 45쪽; 권순진, 앞의 논문, 2012, 174~175쪽. 권순진은 서영일이 제시한 교통로를 제1·2·3기동로로 명명하였는데, 이는 명칭만 다를 뿐 경로는 대동소이하다.

71) 이재·강성문·김기훈, 「임진강 유역의 군사유적 지표조사보고서」, 『학예지』 3, 1993, 319쪽. 임진강 상·하류의 지형적인 차이점은 조선시대에도 큰 문제점으로 작용하였다. 정조 원년(1777) 4월 5일 강원관찰사 김이소의 상소, 정조 10년(1786) 4월 20일 좌승지 이시수의 상소를 보면 임진강 상류의 지형이 험하여 가뭄이 들면 강원도에서 대동미를 운반할 때 어려움이 많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장단의 고랑포까지 육로로 이동해야 하는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어 주목된다.

에는 재령로보다는 자비령로(B)가 보다 중요한 교통로로 이용되었다.⁷²⁾

(그림 4) 고구려의 남부전선 확장도와 교통로



* 출처 : 신광철, 앞의 논문, 2022b, 328쪽

72) 김상호·김원·최홍식, 「한강 및 임진강의 조위영향분석」, 『韓國水資源學會論文集』 36-2, 2003. 임진강은 서해안의 潮汐 또는 한강의 홍수량에 큰 영향을 받는데, 고랑포 부근을 기준으로 조석의 영향이 크게 달라진다. 하루에서는 최대 3.3~5.7m의 수위 상승이 발생하지만, 이 지점 상류부에서는 최대 1m의 수위 상승이 발생하며, 潮位 영향은 급격하게 줄어든다. 이는 이 지점을 기준으로 임진강의 하상 경사가 급격하게 변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형적 특징은 삼국시대에도 큰 차이가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봤을 때 662년 김유신 부대가 배를 타고 고랑포보다 하류 지점을 도강했을 수도 있지만, 수위가 1m 가량 증가했다면 비록 고랑포 일대를 건넜다 하더라도 배를 타야만 했을 수 있다.

재령로가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고려시대에 들어와서이다. 문종 30년(1076) 양반전시과 규정을 살펴보면 1日程·2日程의 柴地 분급 지역과 교통로의 상관성을 엿볼 수 있다. 시지 분급 지역은 개경 인근 지역으로 하루나 이틀 만에 왕복할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하며, 분포를 보면 개경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뻗어 있는 X자형 간선대로가 지나는 곳에 자리한다. 사방으로 7개의 간선대로가 뻗어 있는데 그중 장단-적성을 지나는 '장단도', 임진-파평을 지나는 '임진도' 이외에 임진강 하류를 건너 교하로 향하는 '낙하도'와 정주에서 조강을 건너 동성으로 향하는 '조강도'가 눈에 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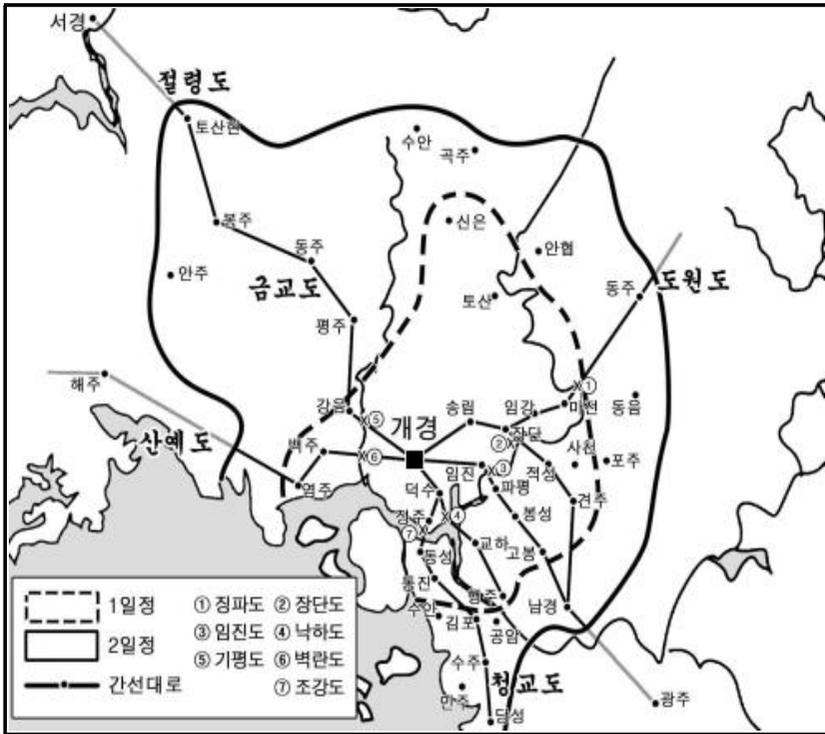
해당 시지 분급 지역의 분포상 특징을 보면 개경의 입지 때문이기도 하지만 예성강·임진강뿐만 아니라 조강과 한강을 건너는 교통로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즉, 이전과 달리 하천을 이용한 수운 활동이 활발해졌으며, 교역과 통제에 적절한 요충지를 중심으로 교통로가 운영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⁷³⁾

그중 조강도를 예를 든다면, 개경 아래쪽의 덕수현에서 조강도를 이용해 조강을 건너 뒤 청교도를 따라 수안현을 경유하는 교통로가 주로 이용되기 시작한다.⁷⁴⁾ 즉, 이전과 달리 수운과 육상교통로가 결합한 간선대로가 운영된다는 점이 삼국시대와 비교했을 때 큰 차이점이다(그림 5).

73) 韓禎訓, 「高麗時代 交通과 租稅運送體系 研究」, 釜山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2009, 89~92쪽.

74) 韓禎訓, 앞의 논문, 2009, 127쪽.

〈그림 5〉 문종대 개경 인근의 간선대로



* 출처 : 韓禎訓, 앞의 논문, 2009, 9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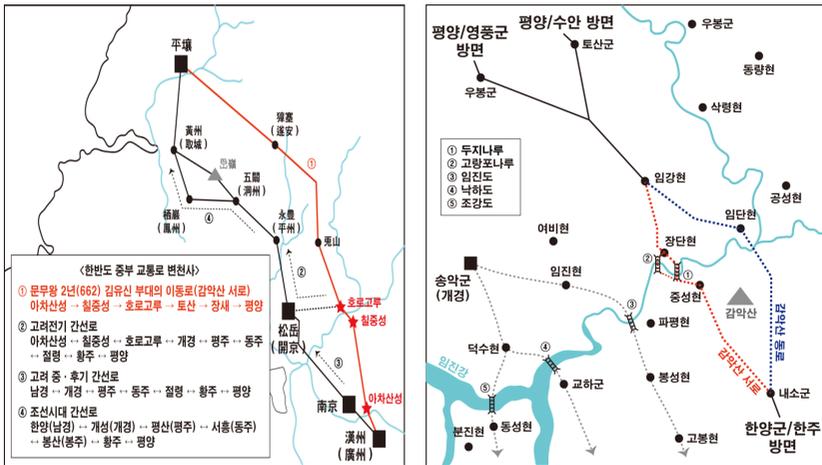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했을 때 고려 이전까지 한반도 남북을 잇는 주요 도로를 꼽자면 임진강의 중·상류를 가로지르는 ‘자비령로’라고 할 수 있다.

일찍이 서영일⁷⁵⁾은 파주시와 양주시, 연천군의 경계에 있는 감악산을 기준으로 감악산 서로(감악산 서쪽-칠중성-육계토성-호로고루)와 감악산 동로(감악산 동쪽-아미성-수철성-적암리-어유지리-당포성지)를 구분하고 감악산 서로가 한반도 중부를 오가는 주요 교통로였을 것으로 보았다. 그와 달리 백종

75) 徐榮一, 『新羅 陸上交通路 研究』, 학연문화사, 1999, 249~261쪽.

오⁷⁶⁾는 남북을 잇는 교통로 5개를 설정하고 감악산 서로(토산-사미천로-호로그루-설마천로-천보산맥 일원-중랑천로-한강 유역) 대신 토산-사미천로-당포성-간파천로-천보산맥 일원-중랑천로-한강 유역을 연결하는 감악산 동로가 신라의 주 교통로였다고 보고 이를 662년 김유신의 진격로와 관련해 이해하였다.

〈그림 6〉 김유신 부대의 이동로(좌)와 감악산 동·서로(우)



* 출처 : 정요근, 「7~11세기 경기도 북부지역에서의 간선교통로 변천과 ‘長湍渡路’」, 『韓國史研究』 131, 2005, 196~197쪽. <지도 1>과 <지도 2> 수정

이에 대해 정요근⁷⁷⁾은 김유신이 건넌 칠중하라는 지명, 설마천과 두지나루·고랑포나루의 위치 등을 고려해 감악산 서로를 따라 신라군이 북진했을 것으로 보았다. 감악산 서로의 나루터는 호로그루와 육계토성이 서로 마주 보고 감제하고 있었기에

76) 白種伍, 「京畿北部地域 高句麗 城郭의 分布와 性格」, 『경기도박물관연보』 3, 2000, 79~81쪽.

77) 정요근, 앞의 논문, 2005, 197~198쪽.

이를 당시 주요 교통로로 이해한 것이다. 한편, 이정빈⁷⁸⁾은 김유신이 배를 타고 건넜다는 기사에 주목해 상대적으로 유량이 풍부한 중·하류로 도하를 했을 것으로 보고 감악산 서로, 즉 호로그루 앞을 지나는 호로탄 인근에서 건넜다고 보았다. 단, 김유신이 큰 길[大路]에서 잠복하고 있을 고구려군을 피해서 이동했기 때문에 감악산 서로가 고구려의 주요 교통로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해석했다. 즉, 당시 주요 교통로는 감악산 서로가 아닌 동로라고 이해한 셈이다(그림 6).

마지막으로 고구려의 남진 경로를 7개로 세분해서 살펴본 박종서⁷⁹⁾는 기존에 자비령로로 불렀던 교통로를 새롭게 정의하여 한성로(웅진로)라고 명명하였다. 단, 호로그루(호로탄)와 육계토성(가여울) 등 여러 도강 처를 언급하면서 감악산 동·서로가 모두 쓰인 것으로 이해하였고, 각 교통로상 비중에 대해서는 따로 다루지 않았다.

임진강을 사이에 두고 자리했던 장단현과 증성현은 삼국 통일 기에는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로 간주하였으나, 통일 이후에는 중요성이 점차 축소되었다. 그러나 장단현은 북쪽 방면 교통로(우봉군-영풍군)와 서쪽 방면 교통로(송악군-예성강-폭지군)의 결절지였기에 7세기 말엽 이래 임진강 이북에 대한 개척이 본격화되면서 그 중요성이 더욱더 강화되었다. 이처럼 장단현을 기점으로 남쪽으로 증성현(적성현)과 내소군(견주), 한양군을 거쳐 한강 변의 양진(광진)까지 도달하는 교통로가 이후 고려시대에 개경과 남쪽 지방을 연결하는 핵심 간선로인 長湍渡路로 발전하게 되었다.⁸⁰⁾

78) 이정빈, 앞의 논문, 2019, 52~53쪽.

79) 박종서, 「고구려 장수왕대 한강유역 진출과 南進路 운영」, 『서울과 역사』 113, 2023, 26~44쪽.

80) 정요근, 앞의 논문, 2005, 205~206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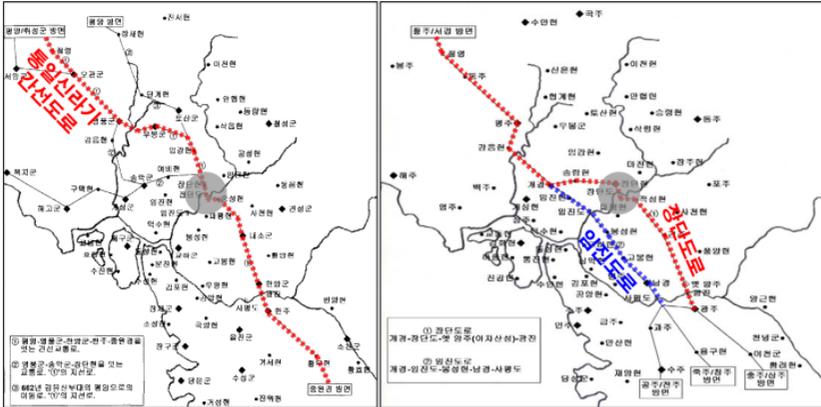
한편, 임진강 유역의 교통로에 큰 변화가 생긴 것은 태봉이 철원에 도읍을 정했을 때로 추정하는 견해가 있다.⁸¹⁾ 신라시대 철원지역은 북방의 교통·군사 거점에 불과했지만, 태봉의 도성이 들어서면서 국가의 중심이 되었다. 당연히 철원을 중심으로 교통로가 재편되었을 것이며, 예성강 유역 및 대동강 유역(토산-신계-평산-평양), 임진강 하류(연천-장단-개성-해주), 한강 유역(포천-서울-용인-안성-공주), 북한강 및 남한강 유역(화천-춘천-홍천-원주), 동해안(평강-안변) 등 방사상의 교통체계가 마련된 것으로 본 것이다. 하지만, 철원에 도읍한 시기가 약 15년에 불과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태봉의 교통체계는 통일신라와 크게 차이가 났다고 보기는 힘들며, 기존의 교통체계를 정비했을 가능성이 컸을 것이다.

한편, 고려시대 조세 운송체계는 京倉 직납, 漕倉 경유, 현지 수납 등으로 세분할 수 있는데 조창을 경유했다가 경창으로 향하지 않고, 경창으로 직접 수납하는 것이 유리한 군현들이 있었다. 이들 군현은 모두 개경 인근에 있으며, 육상교통로인 驛道와 수운이 결합한 운송 네트워크의 이점을 취할 수 있는 곳이었다. 開城府·楊廣道·交州道·西海道에 속하는 95개 군현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그중 양광도 내 개경과 남경을 잇는 교통로가 바로 '靑郊道'였다. 청교도는 임진도와 장단도 2개의 노선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는 개경과 남경이라는 당대 최고의 도시 두 곳의 교역량을 고려한 조치였을 것이다.⁸²⁾

81) 서영일, 「임진강 유역 교통로」, 『임진강 유역, 분단과 평화의 고고학』, 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재연구원·중부고고학회, 2018, 133쪽.

82) 韓禎訓, 앞의 논문, 2009, 98~126쪽.

〈그림 7〉 통일신라기 간선도로(좌)와 고려시기 장단도로(우)



* 출처 : 정요근, 앞의 논문, 2006, 201/207쪽, 〈지도 3〉과 〈지도 4〉 수정

이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삼국시대 이래 고려시대까지 임진강을 건너는 두 개의 주요 도로가 존재했지만, 본래 주요 도로로 이용된 것은 적성지역을 건너는 장단도로였다. 물론 임진도로 상에 있는 임진현, 봉성현, 고봉현 역시 삼국시대부터 군현이 설치된 곳이었기 때문에 이들을 오가는 교통로가 존재했겠지만, 11세기 전반까지도 이들을 지나는 임진도로가 개경에서 남쪽으로 향하는 간선도로로 기능했다고 볼 수 있는 구체적인 문헌사료나 고고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하지만 11세기 중반 이후 국왕의 남경 순수가 잦아지고, 장단도로 상의 양주가 남경으로 승격하여 임진도로 방면으로 移置하면서⁸³⁾ 개경-남경을 잇는 최단 거리인 임진도로가 중요시되었고, 이전에는 장단도로의 보조 기능을 했던 임진도로가 고려 후기로 갈수록 그 위상이 높아졌다(그림 7).

83) 정요근, 「고려중·후기 '임진도로(臨津渡路)'의 부상(浮上)과 그 영향」, 『역사와 현실』 59, 2006, 217쪽. 기존에 개경과 남경까지의 거리는 216리에 달했지만, 이후 166리로 줄어들어 임진도로의 위상이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었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고려 후기 임진도로의 중요성이 주목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장단도로가 중요하게 취급받았다는 점이다. 그건 바로 ‘군사도로’로서의 장단도로가 갖는 장점 때문이었다.⁸⁴⁾ 대규모 군대가 신속하게 남하해야 하는 경우 장단도로가 임진도로보다 더 유리했는데, 임진강 상류의 강폭이 좁고, 여울을 통해 도하에 유리했기 때문이다. 이는 보다 남쪽의 한강 횡단 시에도 적용되는데, 임진도로와 연결된 사평도보다 장단도로와 연결된 광진 방향의 도강에 유리하였다.

실제, 고려 말 우왕 연간 왜구가 양광, 경상, 전라 3도를 약탈하자 이성계의 토벌군이 장단을 거쳐 남하했다는 기록이 확인되며, 군이 남경을 경유할 필요가 없었던 군사 작전은 장단도로를 따라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⁸⁵⁾

이는 조선시대에도 확인 가능하다. 『세종실록지리지』에는 장단현에 속한 나루터로 두지진과 장단도 2개소가 적혀 있는데, 장단현 서남쪽의 장단도는 이미 폐기되어 高浪淵이라 불리며 흔적만 확인되고, 조선 초기에는 현 동쪽의 두지진이 주 포구로 사용되고 있었다.⁸⁶⁾ 임진왜란 발발 이후 한강 방어에 실패하고 도성을 빼앗긴 조선군은 임진강을 방어선으로 삼아 가토 기요마사[加藤清正]의 군대와 대치하였다. 5월 16일, 兩司[사헌부·사간원]에서 ‘임진강 상류의 얇은 여울을 잘 지키고, 하류에서 적군이 뗏목을 만들어 도강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는 상소가 올

84) 정조 5년(1781) 12월 9일, 경기 관찰사 이형규는 교동과 沁都강화도의 군사적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파주의 防禦使를 이전처럼 ‘장단’에 설치할 것을 요청한다. 장단을 ‘畿西 제일의 요충지로서 동으로 神京도읍을 호위하고, 서로 松都[개경]를 견제하며, 남으로 심도의 門戶’라고 평가하고 있는데, 이는 장단 지역이 갖는 군사적 중요성이 조선 후기에 어떻게 인식됐는지 잘 알려주는 대목이다.

85) 정요근, 앞의 논문, 2006, 211쪽.

86) 『世宗實錄』卷148, 地理志 長湍縣, “豆只津: 在縣東, 有渡船, 行旅皆由於此. 長湍渡: 在縣西南, 今廢. 但有舟涉遺基, 俗稱高浪淵.”

라왔는데 특히, 두지진 위쪽의 얇은 여울을 따라 적이 북쪽으로 진격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⁸⁷⁾ 더불어 비변사에서는 도원수 김명원으로 하여금 임진, 두지, 낙하 등 임진강 연안의 위아래를 방어하게 할 것을 건의한다.⁸⁸⁾ 시간이 흘러 약간의 위치 차이는 보이나, 장단현 인근의 여울이 여전히 군사적으로 중요한 도강 처였음을 알 수 있다.

당시 김명원은 여러 장수를 배치하여 임진강의 모든 여울을 지키고 있었다. 앞서 양사와 비변사의 상소에서 알 수 있듯이 도강 처 위주로 적을 방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군은 임진강 남쪽의 언덕에 도착하여 8~9일이 지나도록 대치하다가 5월 17일, 퇴각하는 척 하며 조선군을 유인하였다. 이에 조선군은 강을 건너 추격하는데 장단현 인근의 얇은 여울을 이용했을 것이다. 하지만 조선군은 일본군의 매복에 걸려 大敗하고, 추격군에게 죽은 자도 있었으나 강물에 빠져 죽은 자도 많았다고 한다. 『선조실록』에는 그 장소를 임진강 상류로 적고 있는데, 『세종실록지리지』를 참고했을 때 기본적으로 장단현의 동쪽 일대가 임진강 상류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당시 일본군이 임진강 남쪽에 주둔했으며, 전투에 패해 물에 빠져 죽은 조선군이 많았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장단현 또는 그 하류가 戰場이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또한, 전투가 끝난 후 일본군은 임진강 하류를 통해 무사히 도강하는데⁸⁹⁾, 이는 군사도로로서의 장단도로와 간선도로로서의 임진도로의 성격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87) 『宣祖實錄』 卷26 선조 25년(1592) 5월 16일 을해 3번째 기사.

88) 『宣祖實錄』 卷26 선조 25년(1592) 5월 16일 을해 4번째 기사.

89) 『宣祖實錄』 卷26 선조 25년(1592) 5월 23일 임오 3번째 기사; 『宣祖修正實錄』 卷26 선조 25년 5월 1일 경신 19번째 기사; 朴現圭, 「임진왜란 양주 蟹諭嶺 전투 勝將 申恪의 참형 기록 고찰」, 『東亞人文學』 58, 2022, 337~338쪽.

다. '호로그루'의 성격과 역사적 위상

이상 호로그루 인근의 지형과 교통로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여기서 짚고 넘어갈 점은 호로그루 인근의 고랑포가 임진강 하류에서부터 배가 도달할 수 있는 마지막 지점이라는 사실이다.

임진강은 하류에서 연천군 전곡읍 도감포까지는 유로가 동서 방향에 가깝지만, 도감포에서부터 상류로 올라가면 유로가 남북 방향으로 바뀐다. 연천에서부터 북쪽의 삭령과 조선시대 토산, 안협, 이천 등으로 연결되는 교통로가 남북 방향의 물길에 해당한다. 연천 북쪽으로 임진강 상류는 강 주변에 평지가 거의 없는 협곡지대에 가깝지만, 삭령 일대에는 비교적 넓은 충적 대지가 펼쳐져 있어 해당 지역이 교통의 거점지 역할을 하였다. 삭령을 중심으로 북쪽 방면의 이천, 남쪽 방면의 연천, 동쪽 방면의 철원, 서쪽 방면의 개성 등 사방으로 교통로가 연결되며, 작은 배는 내륙수로를 따라 안협까지 통행할 수 있었다. 조선시대 토산과 안협 일대는 주변의 조세를 모아 수로를 따라 연천 왕징의 징파도로 내려보내고, 여기에서 한양까지 운송하였다. 안협과 토산 또한 임진강 상류의 수륙 교통의 결절지로 기능하였다.⁹⁰⁾

그렇게 봤을 때 호로탄 일대는 고구려가 남하하기 이전부터 남북을 잇는 주요 도강지로 활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고구려 이전, 이곳에 도강을 강제할 만한 관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임진강 유역을 점유했던 선주민은 문헌에 '말갈'로 기록되어 있으며, 고고학상 '중도문화'를 영유했던 집단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들은 남쪽에서부터 시작해 임진강 유역까지 세력을 확장

90) 서영일, 앞의 논문, 2018, 128쪽.

한 백제와 국초부터 끊임없이 相爭했으며, 백제 또한 말갈과의 대립 과정을 겪으며 성장했다. 양측의 전쟁 양상은 주로 말갈의 공격, 이에 대한 백제의 방어 및 반격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는 말갈이 백제와 같은 영역 국가를 이루지 못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⁹¹⁾

한편, 국초 양측의 접전 기록을 보면, 국경에서 광범위하게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데 임진강을 사이에 두고 명확하게 양측의 세력권이 나누어졌다기보다는 漸移地帶의 형태로 세력권이 섞여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⁹²⁾ 즉, 임진강은 양측의 경계가 아니라 양측의 생활권에 모두 속한 '공유하천(Joint river)'⁹³⁾에 가까웠다고 할 수 있다. 이후 3세기 후반까지 유지됐던 대방과 백제의 우호적인 관계⁹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임진강 유역을 장악한 백제가 북쪽으로 예성강⁹⁵⁾을 넘어 황해도 일원

91) 초고왕 49년(214), 진과가 이끄는 백제군 1천 명이 말갈의 石門城을 공격했다는 기사가 「백제본기」에 보인다. 이를 보면 말갈도 성을 중심으로 한 일정 영역을 확보했을 가능성은 있으나, 그 기사를 토대로 영역 국가를 이루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92) 신광철, 「임진강 유역 점유 세력의 변천-백제·고구려의 관계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고대사탐구』 41, 2022a.

93) 박원수, 「통일 이후 한반도 공유하천의 전략적 가치 연구」, 『한국군사학논총』 2-1, 2013, 222~223쪽. 공유하천은 국제하천(International river)이라고도 부르며 국제법 협회(ILA)에서는 이를 '지표와 지하를 흐르는 물을 포함하여 유역경계(watershed)에 의해 결정되는 지역으로서 2개국 또는 3개국의 영토로 뻗고 있고, 공동의 하류로 흘러내리는 지리적 범위를 포괄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국제하천은 크게 상·하류 국가로 분명히 구분되는 경우(transboundary river), 하천이 경계(국경)를 이루는 경우(boundary river), 상·하류국의 구분이 어려운 경우(shared river)로 나뉘는데, 말갈과 백제는 상·하류국의 구분이 어려운 경우, 훗날 고구려와 백제 또는 고구려와 신라는 하천이 경계를 이루는 경우에 해당했다고 볼 수 있다.

94) 백제 책계왕은 대방왕의 사위였으며, 책계왕 원년(286) 고구려가 대방을 공격하자 백제는 고구려와의 一戰도 각오한 채 대방을 지원하였다.

95) 진사왕 2년(386)에 구축한 관방이 예성강 유역을 경계로 구축된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당시 백제의 북계를 이루는 자연 경계는 임진강이 아닌 예성강이었다고 할 수 있다.

까지 진출하면서 임진강은 백제의 경계가 아닌 내지로 인식되었고, 이전 시기와 마찬가지로 백제가 임진강 유역에 별도의 관방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은 요구되지 않았다.⁹⁶⁾

하지만 고구려가 남하한 이래 임진강은 공유하천이 아닌 국경선으로 자연스럽게 자리매김하게 되었고, 일차적으로 임진강을 따라 그 양안에 고구려의 관방시설이 구축된 것 역시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남북을 잇는 최단 거리의 중간 도강지이자, 다리를 놓지 않아도 대규모 인적·물적 자원이 이동할 수 있다는 장점에 주목한 고구려는 그 연안에 호로고루를 축조하고 호로하를 지나는 교통로를 강제하기 시작했다. 자연도로의 성격이 강했던 교통로는 인간의 이동을 위한 물리력이 투사된 대상으로 변했으며, 국경에 설치된 새로운 關門으로서의 위상이 부여된 것이다.

더불어 임진강 유역에 주둔했던 병력의 규모를 추정할 기존 연구⁹⁷⁾를 참고하면 호로고루와 육계토성을 중심으로 1천 명 내외의 병력을 운용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1천 명 내외의 병력을 지휘하는 영천인급 지휘관과 더불어 상위의 말약급 지휘관도 주둔했다고 가정했을 때 호로고루와 육계토성이 갖는 위상은 다른 지역의 관방시설을 압도했을 것이다(그림 8).

96) 서영일, 앞의 논문, 2017, 211쪽. 백제가 임진강보다 예성강 라인을 더 중시하였다는 주장이 있다. 더불어 임진강 일대에도 도강 처를 중심으로 전방의 백제 성곽을 지원하기 위한 성이 존재했을 가능성도 제시하였다. 하지만 백제가 본격적으로 북쪽 경계에 관방체계를 구축하는 4세기 이후에는 이와 같은 해석이 적절하겠으나, 이른 시기에 해당하는 관방유적이 없는 이유는 아무래도 백제 측이 임진강을 대하는 시각에서부터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97) 신광철, 앞의 논문, 2011a, 195쪽.

〈그림 8〉 고구려 남부전선 군사편제 추정도



* 출처 : 신광철, 앞의 논문, 2011a, 194쪽, 〈그림 4〉 수정

치미나 기와의 유무만으로 유적의 성격과 위상을 가늠하기에는 다소 성급한 면이 있지만, 다수의 명문 토기가 수습된 점이나 제의의 흔적으로 볼 수 있는 자료들을 토대로 봤을 때 성곽마다 성격이 달랐을 것이라는 시각에서 접근해볼 필요는 있다. 보다 규모가 큰 육계토성이 군사적인 기능이 강조된 관방시설이라면 호로그루는 행정·제의와 관련된 기능이 강조된 관방시설일 가능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는 한강 유역의 고구려 관방체계에서도 적용 가능한데, 흥련봉 1·2보루가 행정·제의와 관련된 기능이 강조된 관방시설이라면, 아차산 3·4보루는 군사적인 기능이 강조된 관방시설일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봤을 때 호로그루는 남북을 잇는 도강지 및 육상교통로를 감제하는 관문이자, 임진강 하류로 배가 출발하는 최초의 나루터(고랑포)를 통제하는 곳이었다.⁹⁸⁾ 이러한 수륙 교통의 이점을 토대로 각지의 물산이 集散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일반 백성의 교역은 물론 남부전선의 군수체계에도 중요한 곳으로 기능하였을 것이다. 유적 내에서 확인된 다량의 탄화 곡물이 이를 뒷받침하는데, 호로그루의 군창에 적재된 군량미가 자체 소비되었을 뿐만 아니라 각지로 배급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 유적 내에서 출토된 10여 종의 작물 중 쌀과 조의 비율이 특히 높다는 점, 집수시설에서 출토된 벼 껍질을 통해 호로그루에서 탈곡 작업이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⁹⁹⁾¹⁰⁰⁾

98) 고랑포 일대는 한국전쟁 직전까지 밀물 시에 조수를 이용하여 상선들이 모여들어서 하향 촌락이 번성했다.

99)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박물관·연천군 선사문화관리사업소, 앞의 보고서, 2014, 466~467쪽.

100)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연천군, 앞의 보고서, 2007, 323쪽. 벽체 건물지에서 수습된 쌀이나 팥은 비슷한 시기 통일신라 병영터인 칠곡 문화유적 출토품과 비교했을 때 비슷하고, 콩은 보다 더 큰 대립종으로 확인되었다. 일부 곡물은 현지에서 생산하지 않고, 다른 지역에서 보급받았을 가능성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다.

이러한 배경에서 유적 내에서 출토된 동물 뼈의 사용처에 대해 시조 전승 신앙과 관련된 제천행사(돼지)뿐만 아니라 수렵제(사슴 및 고라니), 전쟁 관련 우제점(소), 회맹 의식(말) 등에 쓰였다고 본 견해¹⁰¹⁾를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또한, 교통·군사상 요충지라는 특징을 고려했을 때 이외에도 장거리 교역 및 항해에서의 안녕을 기원하거나, 전쟁이 끝난 후 전사자를 위한 제의도 했을 것이다.

한편, 호로그루에서 확인된 다수의 명문 토기는 당시 최상급 書司 능력을 갖춘 인력들이 호로그루에 존재했음을 알려준다. 병력과 무기의 출입, 근무와 작전에 관련된 문서 수발 등 단순한 군사·행정 업무라면 기본적인 서사 능력만 갖추고 있어도 수행할 수 있지만, 작전 지휘나 군수 보급, 국경에서의 通關 업무나 물자의 집산, 행정문서의 수령과 전달, 각종 제사와 관련된 업무 등을 포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고급 서사 능력을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 필수적이다. 이는 호로그루가 단순히 군사적인 기능만 수행하는 관방시설이 아님을 역설적으로 알려준다.

이상 임진강 유역의 고구려 관방유적 중 호로그루의 성격과 위상에 대해 세부적으로 살펴보았다.

서울~경기 북부와 달리 임진강 유역에서는 시기가 빠른 고구려 유적들이 확인되고 있다. 파주 주월리유적은 남한에서 가장 이른 시기(4세기 중·후반)로 편년되는 고구려 토기가 확인되었으며, 그 외 생활·생산유적에서는 남하한 고구려 문화가 재지계 문화와 융화된 흔적을 보여줄 수 있는 물질자료들이 확인되었다. 주거지 내에서 출토된 고구려 토기, 생활유적 인근의 고구려 횡혈식석실묘 등은 4세기 중반 이후 경기~강원 일대로 남하

101) 백종오, 앞의 논문, 2008, 140쪽.

하는 고구려의 문화가 재지 사회에 어떻게 남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물질자료이다.

이와 더불어 장기적인 군사 작전의 일환으로 임진강 유역에 다수의 관방시설이 축조·운용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고구려 내지로서의 영역화가 진행되었다. 이후 임진강 유역은 고구려 말기 남부전선이 경기 북부지역으로 후퇴할 때까지 고구려의 영역으로 자리 잡았다. 이와 관련하여 임진강 유역에서 지역의 정치·군사 거점이었다고 할만한 성곽을 비롯한 다수의 보루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관방유적 인근의 생활·생산유적 및 분묘유적을 통해 안정적인 영역 확보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와당을 비롯한 다량의 기와, 토기 등이 수습되었으며, 임진강 도강의 길목을 통제하는 ‘호로고루’가 중요한 요충지로 활용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기와의 활용처를 가능했을 때 단순히 지휘관의 公館이나 館舍 성격이 아니라 軍政 또는 군사시설 내 종교 관련 건물이 있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남한지역 전역에서 확인되는 고구려 관방유적의 숫자와 성격을 고려했을 때 임진강 유역에서 유독 기와 출토 사례가 많은 것은 분명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다.

한편, 북한 지역인 임진강 상류에서 심동리산성을 비롯해 성산고성, 만경산성, 거성, 노기산성, 삭령산성 등이 확인된다. 성벽 둘레가 채 1km도 안 되지만, 모두 기와가 출토됐다는 공통점이 있다. 특히, 거성의 500m 북쪽에서는 고구려 석실봉토분이 확인된 바 있다. 황해도와 함경도에 위치하는 고구려성 대부분에서 연화문와당을 포함한 기와가 출토된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임진강 유역이 여타 고구려 내지와 큰 차이가 없는 분명한 고구려 영역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추가령 구조곡 및 임진강을 따라 고구려가 해당 지역을 영역화했다는 점은 당시 고구려가 인식하

는 ‘자국 영토’의 범위가 어느 정도였는지 이해하는 데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 준다.¹⁰²⁾

4. 맺음말

661년 12월 10일, 김유신은 부장 9명을 이끌고 군량을 운반하기 위해 고구려의 ‘界’로 들어갔다. 그리고 662년 정월 23일, 김유신의 부대는 칠중하에 도착했지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강을 건너지 못하자 김유신이 몸소 배를 타고 시범을 보이게 된다. 김유신의 부대가 고구려의 ‘계’에 들어갔을 때와 달리 강 건너 고구려의 ‘境’에 들어가기 두려워했다는 점에서 당시 ‘계’와 ‘경’이 의미하는 범위가 달랐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전자와 달리 후자가 신라군으로 하여금 명확하게 고구려의 영토로 인식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심리적 경계가 칠중하였으며, 칠중하는 같은 사료 안에서 瓢川, 瓢河, 瓠瀘河 등으로 불린 것을 보면 고랑포 또는 호로탄 일대의 임진강을 뜻하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이는 곧 고구려 멸망기까지 임진강 이북이 고구려의 영토로, 그 이남의 어느 범위까지는 고구려의 세력권으로 인식됐다는 것을 알려준다. 그리고 고구려군과 신라군이 임진강을 사이에 두고 대립했던 삼국 후기 호로그루가 차지하는 위상은 단순히 변방의 성 1개에 그치지 않았을 것이다. 예나 지금이나 군사 작전에서 도하는 가

102) 강원도 내지에 고구려성이나 생활유적이 확인되지 않은 이유, 신라 진출 이전까지 영역화 과정 없이 고구려가 강원도 일대를 경영할 수 있었던 이유, 강릉 일대를 영역화한 신라와 춘천 등지에 소수의 횡혈식석실분을 남긴 고구려의 차이 등과 연결해서 이해할 부분이다.

장 위험한 수준에 해당하며, 무사히 도강할 수 있는지에 따라 작전의 성패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한국전쟁 개전 당일인 6월 25일, 고랑포 일대에 대한 포격으로 북한군의 남침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임진강 북안의 국군 제12연대는 북한군과 교전하며, 임진강을 따라 임진나루 쪽으로 후퇴하였고, 제13연대는 고랑포로 강을 건너 북한군 및 적성 방향으로부터 남하한 북한군 전차부대 등과 교전을 거듭하며, 파평산 일대에 방어진지를 구축하였다. 그 사이 제11연대는 제12연대 병력의 철수가 완료된 후 임진강 철교를 폭파하고자 하였으나, 결국 철교 폭파는 실패로 끝났다. 이후 북한군은 평양-사리원-금천-개성-문산-서울로 연결되는 京義道路(1번 도로)를 안정적으로 확보하였으며, 국군은 병력을 보존하면서 후퇴를 거듭하여 28~29일에 걸쳐 각 부대가 행주와 이산포 부근에서 한강 도하 작전을 펼쳤다.¹⁰³⁾ 상기 사례는 삼국시대 이래 임진강 유역에 자리했던 주요 교통로가 현대에도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386년 진사왕은 고구려의 침입에 대비하여 청목령-팔곤성-서쪽 바다에 이르는 관방을 구축하는데, 대체로 마식령산맥 서남단에서부터 황해북도 평산, 해주만으로 연결되는 선에 구축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관방시설 때문인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실제 386년, 389년, 390년 전투에서 고구려는 백제를 상대로 수세에 몰린다. 하지만 결국 고구려는 백제의 북쪽 관방을 넘어 그 이남의 임진강 유역을 공격하는 데에 성공한

103)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제4장 개성·문산·봉일천 지구 공방전』, 『한국전쟁전투사: 38도선초기전투(서부전선편)』, 1985, 156~220쪽;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제4절 개성-문산-봉일천 전투』, 『6.25 전쟁사 2: 북한의 전면남침과 초기 방어전투』, 2005, 169~243쪽.

다.¹⁰⁴⁾ 그리고 392년 광개토왕이 이끄는 병사 4만은 백제 북쪽 변경의 석현성 등 10개 성을 함락한다. 석현성의 위치는 『삼국사기』에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관미성과 칠중성과의 상관관계를 놓고 봤을 때 임진강 이남의 파주 일대로 추정 가능하다.¹⁰⁵⁾

국초 호로탄을 통해 남북을 오갔던 백제군은 말갈과의 교전에 중점을 둔 군사정책을 입안했을 가능성이 크며, 작전지역에 별도의 관방시설을 설치한 흔적은 확인되지 않는다. 특히 말갈을 제압하고 예성강 유역까지 영역을 확장한 이후로는 임진강보다는 예성강을 국경으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임진강 연안에 별도의 관방시설은 설치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예성강 연안의 관방체계가 붕괴하고¹⁰⁶⁾ 임진강에서 도강하는 고구려군을 저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한강 북안의 주요 군사 거점을 상실하고 한강 유역까지 고구려군의 진격을 허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군사 작전 성공의 경험은

104) 정동민, 「4세기 후반 高句麗의 南方 接境과 廣開土王의 對百濟戰 水軍 운용」, 『한국고대사탐구』 38, 2021, 27~29쪽. 이를 두고 당시 고구려군이 수군을 동원해 백제의 관방시설을 우회 공격했다는 견해가 있다. 만약 그렇다면 당시 진사왕이 구축한 관방시설은 제2차 세계대전 때 큰 효용성이 없었던 마지노선과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105) 정동민, 「고구려 광개토왕대의 임진강·한강 유역 진출과 남방 접경」, 『한국고대사탐구』 42, 2022, 154~156쪽.

106) 이용호, 「백제 비유왕의 對고구려 정책과 개로왕의 즉위 과정-450년 대송교섭과 455년 개로왕 즉위 과정을 중심으로-」, 『北岳史論』 18, 2023, 26~27쪽; 梁起錫, 「百濟專制王權成立過程研究」, 檀國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90, 121~123쪽. 최근 비유왕 사망과 관련하여 백제 내부의 해씨 등 온건세력과 고구려가 연계했을 가능성에 대해 언급한 연구(이용호)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475년 고구려의 한성 攻陷 당시 참전했던 재증걸루와 고이만년을 거론할 필요가 있는데, 고이만년을 고이왕계 인물로서 개로왕 즉위 시 정변 세력으로 이해하는 견해(양기석)도 있다. 정변의 배후세력으로 북부 眞氏가 거론되는 만큼 당시 정변에 실패한 백제 고위층이 고구려로 망명하는 과정에서 백제 북방의 관방체계에 대한 정보가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향후 고구려로 하여금 임진강 유역에 대한 방어체계 구축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 고구려는 임진강에 자리한 도강 지점마다 성곽을 쌓고 빠르게 교통로를 확보·통제하였다. 안정적으로 확보된 교통로를 통해 남하한 고구려군은 이내 한반도 중부 이남 각지에서 활발한 군사 작전을 벌이게 되었는데, 그 시발점이 바로 호로탄 일대를 감제하는 호로고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고구려는 임진강을 경계로 그 이북을 영역화하는 데 주력하였으며, 이는 한강 유역을 점유한 뒤에도 계속되었다. 고구려의 남부전선이 확장되거나 백제·신라의 반격으로 후퇴할 때에도 임진강 유역에 대한 영역화 작업은 멈추지 않았으며, 주요 교통로인 자비령로를 통제하는 호로고루 또한 건재했다. 고구려 멸망기까지 호로고루의 위상은 단순히 임진강 유역의 성 1개소에 국한되었다기보다는 고구려 남쪽 국경의 관문, 고구려의 주요 교통로로서 고구려군의 威力이 강하게 작용하는 공간으로 인식되었을 것이다. 그렇기에 호로하를 건너는 행위만으로도 신라군은 두려움을 느꼈던 것이 아니었을까 싶다.

현재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이자 휴전국인 대한민국이라는 지정학적 특징 때문에 호로고루 앞을 지나는 장단도로는 제대로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호로고루를 중심으로 한 지역 축제가 활성화되고, 그 위상에 관해 꾸준히 홍보하고 있으므로 향후 통일이 되면 자비령로-장단도로가 재조명될 기회는 반드시 돌아올 것이며, 그에 따라 호로고루가 갖는 위상 또한 재고될 것으로 생각한다.

〈참고문헌〉

1. 문헌사료

『舊唐書』 『世宗實錄地理志』 『宣祖實錄』 『宣祖修正實錄』 『江漢集』 『記言』 『記言別集』 『大東地志』 『東國輿地志』 『輿圖備志』

2. 논고 및 발표문

강종훈, 「상고기 신라의 영역 확장과정과 지방통치방식」, 『역사와 현실』 31, 1999.

권순진, 「임진강유역 고구려城의 性格 再考-호로그루·당포성·은대리성을 중심으로-」, 『軍史』 83, 2012.

DOI : 10.29212/mh.2012..83.163

고광의, 「남한 출토 고구려 토기 명문 연구」, 『목간과 문자』 27, 2021.

DOI : 10.35302/wdis.2021.12.27.189

김명진·김은정·정봉구, 「전곡리 구석기 유적 절대연대측정의 현황 및 제언」, 『한국구석기학보』 44, 2021.

DOI : <https://doi.org/10.52954/kps.2021.1.44.5>

김상호·김원·최흥식, 「한강 및 임진강의 조위영향분석」, 『韓國水資源學會論文集』 36-2, 2003.

UCI : G704-000417.2003.36.2.008

김성범, 「군사보호구역 내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京畿道 漣川郡篇-」, 『문화재』 25, 1992.

UCI : G704-SER000010438.1992..25.011

박완수, 「통일 이후 한반도 공유하천의 전략적 가치 연구」, 『한국군사학논총』 2-1, 2013.

DOI : 10.34166/rokms.2013.2.1.211

박종서, 「고구려 장수왕대 한강유역 진출과 南進路 운영」, 『서울과 역사』 113, 2023.

DOI : 10.22827/seoul.2023..113.001

朴現圭, 「임진왜란 양주 蟹踰嶺 전투 勝將 申恪의 참형 기록 고찰」,
『東亞人文學』 58, 2022.

DOI : 10.52639/JEAH.2022.03.58.325

白種伍, 「南韓地域 高句麗 關防體系-臨津江流域을 중심으로-」, 『先史와 古代』 26, 2007.

DOI : 10.23024/pah.2007..26.279

백종오, 「남한 내 고구려 유적 유물의 새로운 이해-최근 발굴 유적을 중심으로-」, 『先史와 古代』 28, 2008.

DOI : 10.23024/pah.2008..28.113

백종오, 「高句麗 瓦當의 毀棄와 그 象徴的 意味」, 『한국고대사연구』 66, 2012.

UCI : G704-000848.2012..66.008

백종오, 「臨津江·漢灘江流域 古代 關防體系와 河川路」, 『지방사와 지방문화』 25-2, 2022.

DOI : 10.17068/lhc.2022.11.25.2.229

徐榮一, 「京畿北部地域 高句麗 堡壘 考察」, 『文化史學』 17, 2002.

UCI : G704-000879.2002..17.015

서영일, 「고구려의 백제 공격로 고찰」, 『史學志』 38, 2006.

UCI : I410-ECN-0102-2008-910-002525418

徐榮一, 「신라의 국가형성과 발전단계에 따른 방어체계 연구」, 『新羅文化』 34, 2009.

UCI : G704-001251.2009.34.34.008

서영일, 「삼국시대 임진강 유역 관방체계와 덕진산성」, 『百濟文化』 56, 2017.

DOI : 10.35300/bjclab.56.0.201702.199

서영일, 「임진강 유역 교통로」, 『임진강 유역, 분단과 평화의 고고학』, 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재단연구원·중부고고학회, 2018.

신광철, 「고구려 남부전선의 지휘관과 군사편제」, 『韓國上古史學報』 74, 2011a.

UCI : G704-000730.2011.74.74.007

- 신광철, 「황해도 일대의 고구려 관방체계와 남부전선의 변화」, 『先史와 古代』 35, 2011b.
DOI : 10.23024/pah.2011..35.189
- 신광철, 「임진강 유역 점유 세력의 변천-백제·고구려의 관계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고대사탐구』 41, 2022a.
DOI : 10.35160/sjekh.2022.08.41.5
- 신광철, 「관방체계를 통해 본 고구려의 국가전략 연구」, 高麗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2022b.
- 신형식, 「증원고구려비의 성격」, 『한국고대사의 신연구』, 일조각, 1984.
沈光注, 「남한지역의 고구려 유적」, 『高句麗研究』 12, 2001.
- 심광주, 「임진강 유역 고구려 성곽의 발굴조사 성과와 축성법」, 『高句麗渤海研究』 62, 2018.
DOI : 10.34159/tkby.62..201811.003
- 안성현·박동선, 「아차산 일대 고구려 보루의 구조에 대한 재검토」, 『한국고대사탐구』 32, 2019.
DOI : 10.35160/sjekh.2019.08.32.425
- 안성현·최광훈, 「연천 대전리산성의 성격 연구」, 『文物研究』 34, 2018.
DOI : 10.23117/jcr.2018.34.34.004
- 梁起錫, 「百濟專制王權成立過程研究」, 檀國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90.
- 梁時恩, 「남한 내 고구려 성곽의 구조와 성격」, 『高句麗渤海研究』 36, 2010.
UCI : G704-001250.2010.36..008
- 양시은, 「남한에서 확인되는 고구려의 시·공간적 정체성」, 『고고학』 10-2, 2011.
UCI : G704-002037.2011.10.2.004
- 윤성호, 「신라의 임진강 유역 진출과 대고구려 경계의 형성」, 『한국고대사탐구』 41, 2022.
DOI : 10.35160/sjekh.2022.08.41.45

이용호, 「백제 비유왕의 對高句麗 정책과 개로왕의 즉위 과정-450년 대송교섭과 455년 개로왕 즉위 과정을 중심으로-」, 『北岳史論』 18, 2023.

DOI : 10.37288/bukak.2023.18.1.5

이재 · 강성문 · 김기훈, 「임진강 유역의 군사유적 지표조사보고서」, 『학예지』 3, 1993.

이정빈, 「임진강 · 한탄강 유역의 고구려 지명과 그 의미-경기도 연천 지역을 중심으로-」, 『사학연구』 134, 2019.

DOI : 10.31218/TRKH.2019.06.134.39

이준선, 「적성지역의 전략적 가치와 그 배경」, 『문화역사지리』 16-3, 2004.

UCI : G704-001361.2004.16.3.002

李俊貞, 「飼育種 돼지의 韓半島 出現 時點 및 그 社會經濟的 · 象徴的 意味」, 『韓國考古學報』 79, 2011.

UCI : G704-000699.2011..79.004

이형호, 「南韓地域 出土 高句麗土器 研究」, 高麗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2014.

장창은, 「신라 訥祗王代 고구려세력의 축출과 그 배경」, 『한국고대사연구』 33, 2004.

UCI : G704-000848.2004.33..001

정동민, 「4세기 후반 高句麗의 南方 接境과 廣開土王의 對百濟戰 水軍 운용」, 『한국고대사탐구』 38, 2021.

DOI : 10.35160/sjekh.2021.08.38.9

정동민, 「고구려 광개토왕대의 임진강 · 한강 유역 진출과 남방 접경」, 『한국고대사탐구』 42, 2022.

DOI : 10.35160/sjekh.2022.12.42.147

정요근, 「고려중 · 후기 ‘임진도로(臨津渡路)’의 부상(浮上)과 그 영향」, 『역사와 현실』 59, 2006.

UCI : G704-000054.2006..59.006

- 鄭雲龍, 「5~6世紀 新羅·高句麗 關係의 推移-遺蹟·遺物의 解釋과 關聯하여-」, 『新羅文化祭學術發表會論文集』 15, 1994
- 조한정, 「박제상과 5세기 초 신라 정치」, 『東아시아古代學』 25, 2011.
UCI : G704-001430.2011..25.012
- 주보돈, 「5~6세기 중엽 高句麗와 新羅의 關係-신라의 漢江流域 진출과 관련하여-」, 『북방사논총』 11, 2006.
- 崔種澤, 「京畿北部地域의 高句麗 關防體系」, 『高句麗研究』 8, 1999.
- 洪再善, 「積城 七重城 調査 略報」, 『佛教美術』 7, 1983.
- 韓禎訓, 「高麗時代 交通과 租稅運送體系 研究」, 釜山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2009.
- 今西龍, 「瓠盧古壘址」, 『大正五年度古蹟調查報告』, 朝鮮總督府, 1916.

3. 단행본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2: 북한의 전면남침과 초기 방어 전투』, 2005.
-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전투사: 38도선초기전투(서부전선편)』, 1985.
- 徐榮一, 『新羅 陸上交通路 研究』, 학연문화사, 1999.
- 최종택, 『아차산 보루와 고구려 남진경영』, 서경출판사, 2013.
- 한국보이스카우트연맹, 『韓國의 城郭과 烽燧(上)』, 1990.
- 朝鮮總督府, 『朝鮮寶物古蹟調查資料(長湍郡)』, 1942.

4. 보고서

- 경기도·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재연구원, 『경기도 고구려 유적 종합정비 기본계획』, 2008.
- 경기도·경기문화재단·한양대학교 문화재연구소, 『전곡선사박물관건립 부지 내 문화재 발굴조사 보고서 연천 전곡리성: B·D·E지구』, 2010.

- 경기도박물관·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연천 당포성Ⅱ-시굴조사 보고서-』, 2008.
- 京畿道博物館·坡州市, 『坡州 六溪土城: 試掘調査報告書』, 2006.
- 경기도 연천군·(재)한울문화재연구원, 『연천 호로고루 동벽 남측 치성』, 2018.
- 국립문화재연구소, 『군사보호구역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경기도편)』, 2000.
- 국립문화재연구소, 『남한의 고구려유적-현황조사 및 보존정비 기본계획(안)-』, 2006.
-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연천군, 『연천 은대리성 지표 및 시·발굴조사 보고서』, 2004.
- 명지대학교 한국건축문화연구소, 『연천고구려3대성 종합정비 기본계획』, 2008.
-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文化遺蹟總覽(上)』, 1977.
- 서울대학교박물관·연천군, 『경기도 전곡 선사박물관 건립부지 발굴조사 보고서』, 2007.
- 서울대학교박물관·연천군, 『연천 무등리 2보루』, 2015.
- 연천군·서울대학교박물관, 『연천 무등리 1보루 정밀 발굴조사 보고서』, 2019.
- 陸軍士官學校 陸軍博物館, 『京畿道 坡州郡 軍事遺蹟 地表調査 報告書』, 1994.
-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연천 당포성 1차 발굴조사 보고서』, 2006.
- (재)수도문물연구원, 『연천 무등리(산8번지 일원) 고성산보루 내 유적 발굴조사 약식보고서』, 2022.
- 中部考古學研究所, 『坡州 德津山城-1·2次 學術發掘調査』, 2014.
- 중부고고학연구소, 『파주 덕진산성(6차) 정비사업부지 내 유적 제3차 학술자문회의 자료집』, 2018.
- 중앙문화재연구원·연천군, 『연천 은대리성 성내부 발굴조사: 연천 은대리성』, 2018.

- 坡州市·中部考古學研究所, 『坡州 德津山城 II: 1~5次 學術發掘調査 綜合 報告書』, 2018.
-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연천군, 『漣川 瓠蘆古壘(精密地表調査報告書)』, 1999.
-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연천군, 『漣川 瓠蘆古壘II(1次 發掘調査報告書)』, 2003.
-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연천군, 『漣川 瓠蘆古壘III(第2次 發掘調査報告書)』, 2007.
-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박물관·연천군 선사문화관리사업소, 『漣川 瓠蘆古壘IV(第3·4次 發掘調査報告書)』, 2014.
- 漢陽大學校博物館/文化人類學科, 『坡州 舟月里 遺蹟: '96·'97 한양대학교 조사지역』, 1999.

(Abstract)

The Status and Significance of ‘Horogoru’ in Goguryeo’s Southern Front

Shin, Kwang-cheol

The Imjingang River basin is the end point of the southern front line and remained the home of Goguryeo until the collapse of Goguryeo. As a result, there is a large difference from other areas within the southern front, but a rather similar pattern to the western front has been confirmed. The basin provided advantages in terms of establishing local government, securing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troop management, and territorial defense, so Goguryeo tried to occupy the Imjin River basin in a stable manner.

Currently, 20 Gwanbang sites are distributed along the river in the Imjingang River basin, which shows that fortresses and bastions were organically linked between Goguryeo and Silla to form a "line" shaped border similar to the modern border. Among them, Horogoru has many similarities in terms of Jian's domesticity, Pyongyang's Daeseongsanseong Fortress, and construction techniques and structure, and it can be assumed that it has functioned as a military and political army camp in the region.

In particular, Horogoru's geopolitical status is unrivaled in the Imjin River basin, as it is possible to keep watch Horogoru, the first Yeowolmok from the downstream side, in the Imjin River, which is limited to across the river due to its topography.

It would not be an exaggeration to say that Goguryeo troops, which moved south through stable transportation routes, soon carried out active military operations in the south of the central part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at the starting point was Horogoru to reduce the area of Horotan. Until the collapse of Goguryeo, Horogoru's status would have been

recognized as a space where the power of Goguryeo troops operated effectively as Gateway on the southern border of Goguryeo, rather than simply being limited to one castle in the Imjin River basin.

Keywords : Goguryeo, Southern Front, Imjin River, Horotan, Horoha, Horogoru

